

#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22. 12.



## 제 출 문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유 춘 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이 윤 석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혜 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 낙 현 (중앙대학교 다빈치대학 교수)  
                  : 김 현 주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 엄 태 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유 형 동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최 윤 (강원대학교 BK21 4단계 사업팀 연구교수)  
                  : 이 지 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김 민 정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김 승 은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박 승 희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요 약 문

---

### 1. 연구개요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근대고문헌의 수집·정리·이용·보존·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 방안 수립이 필요함.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방안 수립 및 시행은 현재 국내 각 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중·장기 관리 방안 수립,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각종 운영 방안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개념 확립에 따라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용역 과제를 시행함. 세부 과제로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조사 분석, (2) 국내 기관 소장 근대고문헌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분석, (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이 부여됨. 본 연구진은 문헌연구, 현장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함.

### 2. 연구 결과

#### 2.1. 근대고문헌의 개념 및 기준 설정

- 국내 고문헌 소장 기관 중에서 근대고문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확인됨. 이외에 대다수 국내 기관은 근대고문헌을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정리·보존·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근대고문헌은 산성화로 인하여 자료의 훼손이 심각하고, 한국 근현대 문화사에 있어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이용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1945년까지 산출된 근대고문헌의 보존 및 관리 근거가 마련됨.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대고문헌은 일반 고문헌과 다른 자료이기 때문에,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이나 특수 시설의 건립, 관리 기구의 확대, 전문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2.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조사 및 현황 실태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의 총량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자료의 목록 데이터 중에서 발행 연도가 1894~1945년이고, 자료 구분이 ‘단행(연속간행물 제외)’으로 설정된 자료를 반출하여 제공함. 반출 받은 목록은 CEC(조선총독부 동서), CWC(조선총독부 양서), DDC(듀이십진분류), KDC(한국십진분류), KDCP(박봉석 한국십진분류) 등으로 구분된 총 108,722종 140,245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총량에서, 근대고문헌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근대고문헌의 분류 기준별 현황은 CEC(조선총독부 동서)가 123,419책으로 88.00%, CWC(조선총독부 양서)가 8,798책으로 6.27%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근대고문헌의 발행 시기는 1930년대가 51,876책으로 36.99%, 1920년대가 38,034책으로 27.12%, 1940년대가 25,643책으로 18.28%를 차지하고 있어, 근대고문헌 82%의 자료가 1920~1940년대에 해당함을 확인함.

셋째. 근대고문헌의 사용 언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일본어가 123,575책으로 88.11%이며, 영어는 11,328책으로 8.08%를 차지함. 이때 발행국은 일본이 116,719책으로 83.11%이며, 한국은 8,379책으로 5.97%를 차지함.

넷째. 근대고문헌의 원문데이터는 현재 99,444책인 70.91%가 구축 완료되었음.

다섯째. 근대고문헌의 93.95%에 해당하는 131,762책은 NDL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 내 각 서고에 분산되어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는 자료보존연구센터, 고문헌과, 장서개발과 등으로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의 조사 및 현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급한 해결 과제를 확인함.

첫째. 서고(書庫) 확충 또는 새로운 서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현재 근대고문헌은 1920~1940년대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특성에 맞는 보존 환경을 구비한 서고 확보가 필수적임. 근대고문헌 자료에 적합한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자료의 훼손 예방하기 위해서, 서고의 확충이나 새로운 서고 건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둘째. 근대고문헌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 서고 확충이나 새로운 서고 건립을 통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소관 부서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고, 자료 관리와 열람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연속간행물은 근대고문헌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속간행물 또한 근대고문헌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서고 규모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확보가 필요함. 근대고문헌 14만여 책의 보존을 위한 서고는 밀집서가형인 경우 304㎡, 고정서가형인 경우 742㎡가 필요하며, 기록물 관리 표준에 의거하

면 1,386㎡의 수장 공간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단행자료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제한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23만여 책을 수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고문헌 서고 규모인 1,666㎡ 이상을 확보하여 자료 관리에 대비해야 함.

넷째. 인력 측면, 전문 인력 운영의 새로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근대출판 및 근대문헌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지목록의 고도화, 자료 해제, 자료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특히 상당수의 자료가 일본어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다섯째. 자료 수집 측면에서 다음의 방안이 제기됨.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의 수집 방법은 구입, 수증, 수탁, 민간조사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고문헌의 구입은 유통 가격의 상승, 구입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 반면, 수증과 수탁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문헌과 같은 수집 방법과 정책을 근대고문헌에도 적절히 도입하여, 구입은 미소장 희귀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근대고문헌의 기증과 기탁 유도 캠페인 전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전략, 기증자 예우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3. 국내 주요 기관 근대고문헌 소장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

-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 및 개인 장서가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현황과 총량을 파악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국내 주요 기관 중에서, 고문헌과 근대고문헌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곳은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24개 기관, 대학도서관은 33개 기관, 기타 기관은 4개 기관까지 총 60개 기관이 확인됨.

- 해당 기관에 근대고문헌 소장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서, 1차 작업으로 선행 연구 확인 및 총 목록 등을 통한 근대고문헌의 총량 확인 및 검토, 2차 작업으로 근대고문헌 소장 기관 파악, 기관별 소장 자료 총량 파악, 기관별 고문헌 총량 파악, 기관별 근대고문헌 총량의 파악 및 보완 작업, 3차 작업으로 서면 및 대면을 통한 작업의 보완 순서로 작업을 수행함.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
- 첫째.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24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67,677건으로 추정됨.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기관 중에서 근대고문헌을 일반도서로 분류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근대고문헌을 특별 관리하고 있음. 이때 근대고문헌을 ‘일제강점기, 해방 전 일서, 일제강점기~해방기 문학도서’ 등으로 명명하여 관리하고 있음.
- 둘째. 대학도서관 33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544,160건으로 추정됨. 33개 대학 도서관 중 대다수는 근대고문헌을 일반도서로 분류하는 곳이 많고, 일부 기관에서만 ‘준고서(準古書)’ 등으로 명명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 셋째. 기타 3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35,049건으로 추정됨. 3개 기관은 근대고문헌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근대고문헌의 희귀본, 귀중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음. 기타 기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을 계속 구매 및 수집하고 있어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검토한 인터넷 경매 기관의 경우, 전문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근대고문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됨. 이것은 근대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근대고문헌의 총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고문헌 총량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상황을 확인함. 예를 들어,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5개

기관의 경우, DB로 구축한 고문헌의 총량 57,808건 중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 22,223건을 확인함. 이 수치는 5개 기관에서 구축된 고문헌 총량에서 대략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5개 대표 기관에서 확인된 상황을 현재 파악된 고문헌 총량 300만여 점에 대입해본다면 대략 1,140,000여 건을 근대고문헌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현재 고문헌 총량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상황을 확인함.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 15개 기관의 경우, DB로 구축한 고문헌의 총량 278,158건 중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 26,468건을 확인함. 이 수치는 15개 기관에서 구축된 고문헌 총량에서 대략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15개 대표 기관에서 확인된 상황을 현재 파악된 고문헌 총량 300만여 점에 대입해 본다면 대략 450,000여 건을 근대고문헌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전체 60개 기관을 검토한 결과,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846,886건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재 파악된 근대고문헌이 총량은 목록이나 DB로 구축된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실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기존에 파악된 고문헌의 총량에서 근대고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현재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1945~1950)>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도 있음.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발행된 출판물은 대략 문헌은 대략 11,550종이 확인됨. 각 출판물의 초판본 간행 부수를 200부로 가정한다면 1945년 이전에 대략 2,310,000책이 간행되었다고 추정됨. 전체 간행된 출판물의 50%가 남아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1,155,000여 건으로 추정됨. 근대고문헌의 현존 총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현재 100만여 건의 근대고문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근대고문헌 소장 기관의 운영 및 관리 실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첫째. 근대고문헌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둘째. 근대고문헌의 관리를 위한 특별 서고 운영, 분류표와 목록규칙, 보존 처리실의 설치, 향온향습시스템, 자동소화설비, 수장 시설의 운영, 보존 처리 인력 등이 시급한 과제임.

셋째. 근대고문헌 아카이브의 운영 방향에서 시스템의 측면, 물리적 설비, 전문 인력의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 2.4.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현재 국내 근대고문헌 소장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근대고문헌의 수집 · 정리 · 이용 · 보존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할 책무가 있음.
-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각 서고에 분산되어 소장된 자료를 통합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대고문헌의 별도의 수장고 및 관련 시설의 확보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의 집중 관리 체제를 진행해야 함.
-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의 보존과 관리, 이용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고문헌과 내에서는 근대고문헌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근대고문헌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이 필수적임.

-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근대고문헌 자료 확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을 이용한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고문헌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등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및 확장 방안이 요구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1단계 준비 기간(2023~2027, 5년간): 각 서고에 분산되어 소장된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마련. 별도의 시설 및 수장고 확보. 이를 통한 근대고문헌의 수집, 등록 및 정리, 이용, 보존의 표준 모델을 개발. 근대고문헌의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 2단계 확충 기간(2027~2032, 5년간):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 고문헌 수탁 및 수증 확대, 미 소장 근대고문헌 디지털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근대고문헌 콘텐츠 활용기반 구축, 근대고문헌을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및 확장 방안 마련. 수장고의 평창 이전 또는 근대고문헌을 위한 단독 건물 건립 추진.
  - 3단계 고도화 기간(2033~2037, 5년간): 근대고문헌 관리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가차원의 근대고문헌 관리 조직 구성을 통한 민간 소장 자료 확인 및 점검, 근대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작업 진행. 근대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진행.

### 3. 논고 및 사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 근대고문헌의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첫째. 근대고문헌의 정의 및 대상 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고문헌의 정의, 형식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근대고문헌으로 명명했지만 현재 각 기관마다 동일 대상을 두고 상이하게 부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명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근대고문헌의 시기를 1945년 이전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전쟁시기까지, 또는 납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방안이 필요함.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문(朝鮮門)으로 분류된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 자료는 대부분 COC(조선총독부 고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목록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집 당시 작성된 목록을 기초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KORMARC)의 요소가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상황에서 COC(조선총독부 고서)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이 자료의 서지목록 고도화 작업이 수행되면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은 물론, COC(조선총독부 고서)의 정밀한 목록 보완 작업과도 연계될 수 있음.

셋째. 근대고문헌은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를 복원하는 작업은 문화재 복원과 같은 의미를 지님. 이를 위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함.

- 도서관 목록 검토 사례를 통해서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함.

첫째. 근대고문헌의 표기 언어는 영어, 일본어, 한자, 한글, 기타 외래어가 혼재되어 표기된 경우가 많음. 이를 일괄적으로 Jpn, Chi, Kor 하나를 택하여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정확한 실상을 고려하여, 표기 언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대고문헌의 관리에서, 연속간행물이 포함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음.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행본으로 분류된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아울러 자료의 성격상 분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근대고문헌의 자료 중에는 시리즈물로 간행된 경우가 많음. 현재 합철된 경우가 많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합철이나 분책을 선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단권으로 묶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분책이 필요가 경우, 중국책이 일본책으로 정리된 경우, 간행시기가 미상인 자료지만 실제로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자료를 단행본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고문헌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표 / 그림 목차

〈표 II-1〉 국내 주요 기관별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	7
〈표 II-2〉 온라인 전자 통합 시스템의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	10
〈표 II-3〉 근대문학 자료유산 가이드라인의 예시 .....	14
〈표 III-1〉 조선총독부도서관 자료 등록 구분 .....	21
〈표 III-2〉 조선총독부도서관 자료 구분 및 분류표 .....	22
〈표 III-3〉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수집 현황 .....	23
〈표 III-4〉 국립중앙도서관 분류법 적용 현황 .....	25
〈표 III-5〉 조사대상 자료의 분류 기준별 수량 .....	26
〈표 III-7〉 조사대상 자료의 분류 기준별 수량 .....	27
〈표 III-9〉 조사대상 자료의 언어 구분별 수량 .....	28
〈표 III-11〉 조사대상 자료의 발행국 별 수량 .....	29
〈표 III-13〉 조사대상 자료의 원문데이터 구축 현황 .....	30
〈표 III-15〉 근대고문헌 배가위치와 소관부서 현황 .....	31
〈표 III-17〉 근대고문헌 보존서고 면적 산출 .....	33
〈표 III-18〉 고문헌 수집 현황 (2012-2021년) .....	34
〈표 IV-19〉 근대고문헌 조사 대상 기관표 .....	39
〈표 IV-20〉 근대고문헌 현황 및 총량 파악을 위한 작업 과정도 .....	40
〈표 IV-21〉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실태 .....	42
〈표 IV-22〉 대학도서관 근대고문헌 실태 .....	51
〈표 IV-23〉 기타 기관 근대고문헌 실태 .....	61
〈표 IV-24〉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근대고문헌으로 분류 가능한 자료의 상황 .....	65
〈표 IV-26〉 대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근대고문헌으로 분류 가능한 자료의 상황 .....	67
〈표 IV-28〉 국내 주요기관 소장 근대고문헌 총량 .....	72
〈표 V-29〉 밀집서가형(CSS)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	83
〈표 V-30〉 고정서가형(FSS)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	83
〈표 V-31〉 기록물 관리 표준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	84
〈표 V-32〉 특별서고 예산 산정 방식 .....	85
〈표 V-3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관리 주요 업무 현황 .....	87
〈표 V-3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관리 주요 업무(안) .....	89

〈그림 I-1〉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의 영역별 과제 및 과업 .....	5
〈그림 II-4〉 근대고문헌 제도 확립의 의의와 필요성 .....	17
〈그림 III-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자료 소장 현황 .....	26
〈그림 III-8〉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시기별 분포 현황 .....	27
〈그림 III-10〉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언어 구분별 수량 .....	29
〈그림 III-1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발행국 별 수량 .....	30
〈그림 III-1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원문데이터 구축 현황 .....	30
〈그림 III-1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배가위치와 소관부서 현황 .....	31
〈그림 III-19〉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수집 현황 및 동향(2012-2021년) .....	35
〈그림 IV-25〉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에서 근대고문헌의 자료 비율	65
〈그림 IV-27〉 대학기관 고문헌 중에서 근대고문헌의 자료 비율 .....	68
〈그림 V-35〉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의 연차별 계획 .....	102

# 목 차

\* 요약문

\* 표 / 그림 목차

## I.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5

## II. 근대고문헌의 개념 및 기준 설정

- 1. 근대고문헌 개념 도입과 방안 수립의 필요성 ..... 7
- 2. 근대고문헌 개념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 ..... 13

## III.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조사 및 현황 실태

- 1. 근대고문헌 조사 ..... 18
  - 1.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18
  - 1.2. 조사방법 ..... 18
- 2. 수집 자료의 시기별 유형 및 특징 ..... 21
  - 2.1. 일제강점기 수집 자료 ..... 21
  - 2.2. 해방기 수집 자료 ..... 24
  - 2.3. 근대고문헌의 총량 및 특징 ..... 26
- 3. 수집 자료의 운영 현황 ..... 31
- 4. 수집 자료의 운영 방향 ..... 32
  - 4.1. 공간 측면: 서고 확충의 필요성 ..... 32
  - 4.2. 인력 측면: 전문 인력 운영의 필요성 ..... 33
  - 4.3. 자료 수집 측면: 조사에 따른 제반 논의 ..... 34

#### IV. 국내 주요 기관 근대고문헌 소장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

1. 조사의 목적, 필요성, 방법 .....	36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36
1.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	37
2. 근대고문헌 자료 구축의 현황 .....	42
2.1.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	42
2.2. 대학도서관 .....	50
2.3. 기타 기관 .....	61
3. 근대고문헌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	64
3.1. 기관별 근대고문헌 현황 분석 .....	64
3.2. 근대고문헌 총량 추정 .....	72
3.3. 운영 및 관리 실태 .....	75
4. 근대고문헌 아카이브의 운영 방향 .....	77
4.1. 운영 관리를 위한 측면 .....	77
4.2. 보존 관리를 위한 측면 .....	77
4.3. 전문 인력의 측면 .....	77
4.4.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77

#### V.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1.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관리, 활용의 특화 방향 .....	80
1.1. 1단계: 특별서고 마련을 위한 집적과 집중 .....	81
1.2. 2단계: 맞춤형 관리 .....	86
1.3. 3단계: 문헌 확충 .....	90
1.4. 4단계: 대국민 서비스 .....	93
1.5. 5단계: 환류 체계 수립 및 고도화 .....	95
2. 근대고문헌 관리 보존 시설 확충의 필요성 .....	98
3.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방안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 .....	99
4.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단계별-연차별 계획 .....	100

[논고]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	103
[사례] 도서관 목록 검토 사례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 .....	113
[참고문헌] .....	11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정책 제시의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고문헌과를 중심으로 국내·외 산재(散在)한 고문헌을 적극 발굴·수집·정리·보존해 왔고, 이를 위해서 고문헌 중·장기관리 발전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왔음.

고문헌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중요한 지적(知的) 문화재임.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 협회, 한국 서지학회 등의 유관 단체와 함께 『한국목록규칙(제1판~제4판)』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시행해 왔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대의 변화, 학문 영역의 확장, 학문 관심 분야의 다변화에 따라 고문헌 수집·관리의 준거가 되었던 『한국목록규칙(제4판)』의 고문헌 <규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제기됨. 즉 『한국목록규칙(제4판)』에서 “대한제국 이전(1910년 이전)에 간인(刊印)되거나 필사(筆寫)된 동장본(東裝本) 및 고문서(古文書)를 주 대상으로 함(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影印本)이나 장정(裝幀)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sup>1)</sup>는 규정에 의거한다면 1910년대 이후에 간행되었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보존·관리의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하여 보완할 고문헌 정의의 확대 요청 및 수정 등이 제기됨.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대한제국 이전(1910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를 고문헌으로 인식하여 특별 보존·관리해 왔음. 최근 1910년 이후 간행된 자료도 고문헌으로 인

1)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159쪽.

식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국내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자료는 산성화로 인해 자료의 훼손이 심각하고, 한국 근현대 문화사(文化史)에 있어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자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자료의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강한 상황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과에서는 이러한 고문헌 범위 확대에 관한 내·외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에 선도적으로 ‘고문헌 기준 확대 관련 회의’를 개최함. 그리고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소속 35개 기관을 통한 확대 및 보완에 대한 의견 수렴, 2021년에는 한국서지학회와 공동으로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의 개념 도출, 근대고문헌의 보존·관리 방안의 필요성 등을 도출해 냄.

그동안 고문헌의 기준은 발행 시기, 표기 문자, 제작 방법, 지질(紙質), 장정(裝幀)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규정하여 왔음.<sup>2)</sup> 이 기준에 의거하여 파악된 고문헌의 총량은 300만여 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sup>3)</sup> 고문헌의 총량은 1911년 이후 1999년까지 발행된 고문헌까지를 포함한 수량임.<sup>4)</sup> 주목할 것은 1911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고문헌이 전체 고문헌 총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그동안 1910년을 고문헌으로 분류한 기준 원칙에서, 발행 연도의 기준은 최소한 1945년으로 확대해야 할 근거가 확인됨.

그리고 고문헌은 제작 방법에 따라 판본, 필사본, 인쇄본으로 분류되어 왔음. 그러나 개항(開港) 이후에는 이런 제작 방식에서 벗어난 석인본, 신연활자본, 목활자 인쇄본 형태의 고문헌의 간행이 큰 폭으로 증가함. 아울러 장정(裝幀) 방식은 전통적인 고문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장본(洋裝本) 형태가 증가됨. 따라서 제작 방법, 장정 방식에 따라 고문헌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 특히

---

2) 국립중앙도서관 편,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립중앙도서관, 2021, 11-12쪽.

3)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8, 6쪽.

4)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31쪽.

전통적인 제작 방식이나 장정 방식을 따르지 않은 양장본 형태의 고문헌은 1915년에서 1943년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그 총량은 고문헌 총량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됨.<sup>5)</sup> 따라서 전통적인 제작 방법이나 장정 방식에 따라 고문헌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시정해야 할 근거가 확인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고문헌 소장 기관임. 아울러 국내에서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근대고문헌의 국내 최대 소장처임.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근대고문헌의 보존·관리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서, 국내 각 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중·장기 관리 방안 및 운영 상황에 대한 해결책 및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의 개념 설정에 따른 과업(課業)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서지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근대고문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그 결과 근대고문헌의 개념, 기준, 관리 및 정책 제시 방안의 단초가 마련되었고, 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과제로 부여되었음.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업이 제시되고 해결 방안이 요청됨.

첫째, 근대고문헌은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인쇄출판술로 간행·필사되고 양장본(洋裝本) 등의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라는 정의가 마련됨.<sup>6)</sup> 이에 따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각 관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인 작업, 특정 부서에서의 일원화 관리가 요청됨.

---

5)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33쪽.

6)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33쪽.

둘째. 근대고문헌의 전체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시기적 추이 및 범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의 수량 등을 파악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이에 의거한 통합된 보존·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근대고문헌 보존·관리 방안 및 정책 제시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국내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소장 및 수량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결과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대고문헌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대고문헌의 개념 확립에 따른 근대고문헌의 통합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중에서, 1911년부터 1945년도에 발행된 근대고문헌 장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고문헌 자료의 통합 관리 및 정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됨.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용역 연구의 주요 과제

<b>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조사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시기별 수집 추이 및 수집량 조사 분석</u></li> <li>□ <u>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보존 관리 및 활용 현황 분석</u></li> <li>□ <u>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장서 관리 및 서고 확보 방안</u></li> <li>□ <u>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을 위한 물적공간(서고, 자료실, 전시실) 등 규모 및 타당성, 신설 방안 제시</u></li> </ul>	<b>국내 기관 소장 근대고문헌 소장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근대고문헌 소장 국내 기관의 상황 파악</u></li> <li>□ <u>근대고문헌 소장 국내 기관의 규모별, 소장량 파악</u></li> <li>□ <u>근대고문헌 소장 국내 기관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u></li> <li>□ <u>근대고문헌 소장 기관의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u></li> </ul>
<b>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근대고문헌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집 방안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한 발전 방안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 현황 조사를 통한 중장기 방안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 현황 조사를 통한 우선 해결 과제의 제시 및 방안</u></li> </ul>	<b>국내 기관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가대표도서관 책무에 맞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체계 방안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 총량, 자료 확충 방안의 제시</u></li> <li>□ <u>근대고문헌 활용을 위한 각종 방안 제시</u></li> </ul>

〈그림 I -1〉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의 영역별 과제 및 과업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개념의 확립에 따라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에 〈그림 I -1〉과 같은 용역 연구 과제가 제시되었음.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1. 연구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 주요 기관 소장(단,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 공개 의사를 밝힌 기관을 대상으로 함)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근대고문헌을 대상으로 함.<sup>7)</sup>

## 2.2. 영역별 주요 연구 과제

- 제1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조사 및 현황 실태
- 제2과제: 국내 주요 기관 소장 근대고문헌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
- 제3과제: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제언

## 2.3. 연구 방법

### 2.3.1. 문헌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장서목록 등을 통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근대고문헌의 기초적인 정보 및 주요 소장처에 관한 각종 관련 문헌 연구
- 기타 유관 기관 및 주요 도서관 장서목록 등을 통한 기초자료 정리 및 분석

### 2.3.2. 현장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관리 실태 조사 분석
- 주요기관 근대고문헌 운영 및 관리 실태 조사
- 주요기관 근대고문헌 담당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업무 개발

### 2.3.3. 전문가 자문

- 근대고문헌 보존,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7) 근대고문헌의 정의는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33쪽 참조. “1945년 이전에 인쇄 출판술로 간행, 필사되고 양장본 등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를 근대고문헌으로 정의하고 있음.

## II | 근대고문헌의 개념 및 기준 설정

### 1. 근대고문헌 개념 도입과 방안의 필요성

국내에 설립된 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기관 중,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도서관 3개, 공공도서관 37개, 국공립 대학도서관 19개, 사립 대학도서관 67개, 연구기관 3개, 기타 기관 45개 등, 총 174개 기관이 파악됨. 전체 174개 기관에는 300만여 점의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음.<sup>8)</sup>

이 기관에는 대부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또는 일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간행된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음. 기관 중에서 일부는 이 자료를 고문헌으로 포함시키고 있거나, 근대문헌 등의 별도 명칭 등을 붙이고, 자체 내규를 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II-1〉 국내 주요 기관별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번호	구분	기관명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1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 해당 자료를 근대문헌으로 명명하여, 고문헌과와 장서개발과 등에서 관리. 특히 근대시기의 문학 자료를 특화시켜 근대문학정보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대문학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DB구축 및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상세 검색을 통해 제목, 저자, 발행처, 기관별, 장르별, 발행연도별 조회 및 검색 기능 제공).

8)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18, 25쪽.

번호	구분	기관명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2	국공립 대학도서관 및 주요 기관	경상대 중앙도서관	별도의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고문헌 관리 규정 내에서, 근대고문헌을 “근현대 귀중 및 희귀자료”로 언급하고 관리됨.
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별도의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일반 고도서 항목을 설정하여, 1945년 이전 수집, 1945년 이후 수집 등으로 문헌을 구분. 아울러 이를 ‘한국학자료’로도 명명하고 있음.
6	주요 사립대학 도서관 및 관련 기관	고려대 도서관	별도의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근현대 자료 중에서 귀중본, 신문과 잡지 등을 별도로 선정, 디지털화(Digitizing)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
7		단국대 퇴계기념 중앙도서관	공시 규정이 있음.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근현대 자료를 준고서(準古書)로 규정. 준고서는 “1910년 이후부터 1959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유일본(唯一本) 또는 희귀본(稀貴本) 도서. 1910년 이후 출판된 동장본 형태의 간본 및 사본. 소장 중인 고서, 귀중본, 고문서 등의 복제자료(형태 불문). 기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등 문화유산으로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문헌 일체를 말함.”이라고 정의를 내림.
8		연세대 학술정보원	공시 규정이 있음.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고문헌을 “고서 및 신서 귀중본”으로 구분하고 있음. 근대고문헌의 경우에는, 신서 귀중본이라 명명, 이를 “개화기 이후부터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자료”로 구분. 주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
9		이화여대 도서관	별도의 공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고서, 준고서, 귀중본으로 구분하여 관리됨.
10		송파책박물관	별도의 공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운영부에서 근대고문헌, 근대서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를 구매하고 있음.



번호	구분	기관명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11	주요 사립대학 도서관 및 관련 기관	한국근대문학관	근대문학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기관. 근대문학의 범주를 설정, 그 기간을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로 설정하여, 문학 자료만 집중적으로 보존, 관리 및 구매하고 있음.
12		현담문고 (구 아단문고)	근대문학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수집, 연구 기관. 근대서지학자 백순재(白淳在)가 수집했던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간행된 희귀 단행본과 신문, 잡지, 신문 스크랩, 주요 문인들의 육필 원고 등을 소장, 이 중에서 주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고문헌 소장 174개 기관 중, 근대고문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대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송파책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현담문고 등이 있음. (\*〈표 II-1〉에는 기재되지 않은 서강대의 경우, 관련 내규는 없지만 주요 근대고문헌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각 기관은 현재 『한국목록규칙(제4판)』을 적용한 고문헌의 규정 내에서, “근대 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준고서(準古書)’로 분류하거나 ‘근대문헌’으로 규정하여 수집과 보관, 관리하고 있음.

각 기관은 설립연도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었던 오래된 기관, 관리의 주체가 국가인 기관이면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자료를 넘겨받은 곳으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 특별히 근대문헌만을 수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이 특징.

이 기관들은 현재 『한국목록규칙(제4판)』을 적용한 고문헌 규정과는 별도로, 선제적인 측면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또는 일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고문헌’과 같이 보존 및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신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단국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근대고문헌을 ‘준고서’로 규정하거나 ‘신서(新書) 귀중본’으로 분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수집, 보존 및 관리하고 있음. 한편,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근대문학관, 송파책박물관, 현담문고처럼 근대고문헌 중에서 ‘근대문학 분야 자료’만을 특화시켜 관련 자료를 구입, 보존, 관리하고 있음.

한편, 고문헌을 관리하는 대표 온라인 전자 통합 관리 시스템인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현재 고문헌 통용되는 『한국목록규칙(제4판)』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근대고문헌’을 고문헌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표 II-2〉 온라인 전자 통합 시스템의 관련 내규 및 근대고문헌 관리 현황

번호	구분	시스템 내의 항목 구분
1	한국고문헌 종합목록	자료의 ‘내용형식’에 따라 서지, 운서, 법전, 서화, 금석문, 방목/관안, 족보/계보/세보, 불전, 주석/평주/해제, 조약집/외교문서, 통계, 경전, 지지, 지도, 고문서 등 16개 범주로 분류. 판종을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도활자본, 포활자본, 신연활자본, 석판본, 유인본, 영인본, 사진판본, 미상, 기타의 13개 범주로 분류. 기관에 따라 일부 영역에 따라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것도 있음.
2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각 기관의 전문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형태로 제공. 통합 디렉토리는 3단계 분류 체계로 구성. 1단계는 자료 형태에 따라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 고전국역서, 연구자료, 목록·해제, 인물, 지도, 사전, 연표, 멀티미디어자료, 유물·유적의 14개 범주로 자료를 분류. 2~3단계는 자료 형태에 따라 고서는 사부분류체계(經, 史, 子, 集類)로 세분되고, 고문서는 간찰, 서간, 계문서, 고문 등 84개 유형으로 분류. 근대고문헌의 경우에는 연속간행물 내에 잡지와 신문으로 구분.

대표 온라인 전자 통합 시스템은 현재 고문헌 분류 체계 내에서, 세부 항목에 따라서 <표Ⅱ-2>처럼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고문헌 항목에 포함시켜 필요한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도서나 연속간행물 항목”에서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주요 근대고문헌만을 선별하여,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 목차, 주요 내용 등을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 형식은 현재 규정된 고문헌의 범주를 따르면서 ‘근대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고 정보를 탑재하고 있음.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 중에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 문헌이나 관련 자료”에 한하여,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근대문학관임.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운영과’에서는 2016년 문학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sup>9)</sup> 별도의 예산을 제공받아 국내의 산재한 다양한 근대문학자료를 수집함. 근대문학자료는 1894년부터<sup>10)</sup> 1945년까지에 간행되었던 단행본, 문학서, 잡지로 한정하여, 해당 자료를 201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수집했음. 현재 해당 자료는 2021년 9월에 고문헌과로 이전됨.

근대고문헌과 관련해서 특화된 수집 및 운영을 보여주는 곳은 인천의 한국근대문학관임.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문화재단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근대문학만을 단일 주제로 하여 건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 종합문학관. 자체적으로 근대문헌의 범주와 시기를 명시하고 확정 지음. 근대문헌의 정의, 시기, 범주를 근대계몽기(1894년)에서부터 해방기(1948년)까지 출판된 것, 필사된 자료, 기타 유관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sup>11)</sup> 기타로 근대서지학회에서는 “근대계몽기에서부터 해방기까지 출판된 단행

---

9) 문학진흥법은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됨.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에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0) 국어국문학계에서는 갑오개혁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고 있음.

11) 한국근대문학관 <http://lit.ifac.or.kr>

본 및 희귀본 잡지”를 근대고문헌으로 규정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음.

이상과 같이 국내 주요 기관의 근대고문헌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음. 해당 기관에서는 『한국목록규칙(제4판)』에 근거를 두고, 고문헌의 하위 항목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산출된 근대고문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문제는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을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근대고문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기반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체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 마련 및 확대를 통해서 근대 시기에 산출된 중요 전적 자료에 대한 관리, 보존이 시급한 과제임.

## 2. 근대고문헌 개념 확립을 위한 선행 연구

근대고문헌의 개념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대’의 개념 및 정의 문제, ‘근대’의 시기 설정임. 이는 학계마다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쟁점 사항임. 근대고문헌의 규정과 범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기점(起點)을 언제로 볼 것이며, ‘근대’의 하한(下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역사학(歷史學) 분야에서는 근대의 기점을 임진왜란 이후로 보는 견해, 실학(實學)이 등장했던 17세기말 18세기 초로 보는 견해, 강화도(江華島) 조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는 견해, 한일강제병합 이후로 보는 견해 등으로 다양함. 그리고 근대의 하한 시기 또한 8.15 해방 이전으로 보는 견해, 8.15 해방 이후로 보는 견해, 한국전쟁 시기로 보는 견해,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립 직전 시기로 보는 견해 등으로 매우 유동적임.<sup>12)</sup> 한편 국문학(國文學) 분야에서도 근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현재도 논쟁 사항임.<sup>13)</sup>

한편, ‘문학진흥법(文學振興法)’이나 문화재 분과에서, 근대문화유산(近代文化遺産)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제도’에서 확정한 ‘근대’의 개념도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근대고문헌의 개념을 이와 연계해 볼 필요가 있음.

‘문학진흥법’은 2016년에 제정됨. ‘근대’의 개념, 범주에 대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친 결과, ‘근대’에 대한 규정을 “언어, 제도, 사상 세 가지 측면”, “근대적 인쇄출판과 근대문학의 뚜렷한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음. 그 결과 출발점을 1894년 게일의 『천로역정(天路歷程, Pilgrim Progress)』의 번역, 1895년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출간으로 잡음. 그리고 그 하한선

---

12)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7-29쪽.

13)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1890-1945: 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소명출판, 2012.

은 1945년 해방기까지로 하였음. 그리고 근대문학의 범주를 ‘근대문학자료유산 가이드’라 명명하고 〈표 II-3〉과 같이 그 범위를 정해놓음.<sup>14)</sup>

〈표 II-3〉 근대문학 자료유산 가이드라인의 예시

근대문학자료유산 가이드라인			설명
도서	기존 문학 장르 출판물	시집	기존 장르별 출판물을 지칭함. 시, 소설, 수필, 평론 외 에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함.
		소설집	
		수필집	
		평론집	
		아동문학	
		희곡집	
		시나리오	
		번역번안	
	문학참고자료	문학참고자료	장르 출판물은 아니나 근대문학의 사상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자료들과 문인들에게 영향을 준 자료들을 구분하여 정리.

문학진흥법의 특징은 도서만이 아니라 비도서(문인유품)까지도 보존,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완성된 서적(문학)만이 아니라 결과물로 산출되기 위한 여러 요소를 ‘근대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두었다는 점이 특징. 그러나 이를 근대고문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

근대문화유산(近代文化遺産)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된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에서는 근대의 개념, 근대문화재의 정의를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 전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이자 한국사의 연속적 전개 과정으로 보고 외래 문물의 수용, 경제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건설 또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경

14)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2014.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조사』, 국립중앙도서관, 2015.

과 된 것”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sup>15)</sup>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처럼 근대와 관련된 규정을 탄력적으로 잡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 “보존과 활용을 위해 폭넓게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하여 산실(散失)되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겠다는 인식 때문. 그러나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근대고문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역시 문제가 있음.

근대고문헌 설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서지학회임. 두 기관에서는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 현재 등록된 자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1911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고문헌 47만 5천여 건 중에서 113,745건이 1945년 이전에 발행된 것임을 확인함. 이를 통해서 대한제국 이전(1910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만을 보존·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945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 역시, 보존·관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함. 아울러 이 자료를 근대고문헌으로 명명하여 보존·관리할 것을 제시함.

근대고문헌은 전통 고문헌과 다른 재질의 자료이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는 것은 보존·관리·열람·정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지적함. 즉 종이의 재질이 상이하여 일반고서와 보존관리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그 대안으로 비록 고문헌 범주에 속하더라도 구별해서 별도의 공간과 운영체제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함.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서지학회의 근대고문헌 설정 및 관련 대책 방안 제시는 국내 도서관 및 연구기관 소장 고문헌을 등록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 의거하여, 근대고문헌의 시기, 근대고문헌 설정의 필요성, 근대고문헌 기준에 대한 근거(발행시기, 판본, 종이, 장정 등), 그리고 근대고문헌 관리의 별도의 공간 및 조직의 필요성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선행연구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은 관리의 당위성,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별도 공간 및 관리 기구의 확대, 더 나아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는

---

15)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근대 동산문화재 보존 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문화재청 편, 『근대문화유산 분류 방안』, 문화재청, 2013.

상황을 볼 수 있음.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현재 고문헌 관리 제도의 핵심은 『한국목록규칙(제4판)』에 의거한 고문헌 관리 방안은 그 시기를 191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자료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근대고문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지적 문화재를 차후 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근대고문헌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첫째. 국가 지적 문화재 관리 체계 근거를 확립할 수 있음. 현재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근대지적문화유산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둘째. 기관별로 혼선되어 수집 및 보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셋째. 일제강점기에 산출된 각종 문헌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 시기에 생산된 자료는 산성화로 인한 훼손이 심해,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넷째. 한국 근대지적문화유산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체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재 근대고문헌을 등록케 함으로써, 기관 간 자료 확보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관 간의 협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다섯째. 한국 근대지적문화유산 자료의 보존 및 활용 제도 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근대고문헌 종합 목록을 차후 구축함으로써, 근대고문헌의 디지털라이징, 원문 텍스트 구축, 연구 및 자료집 발간, 보존 및 대체 자료 제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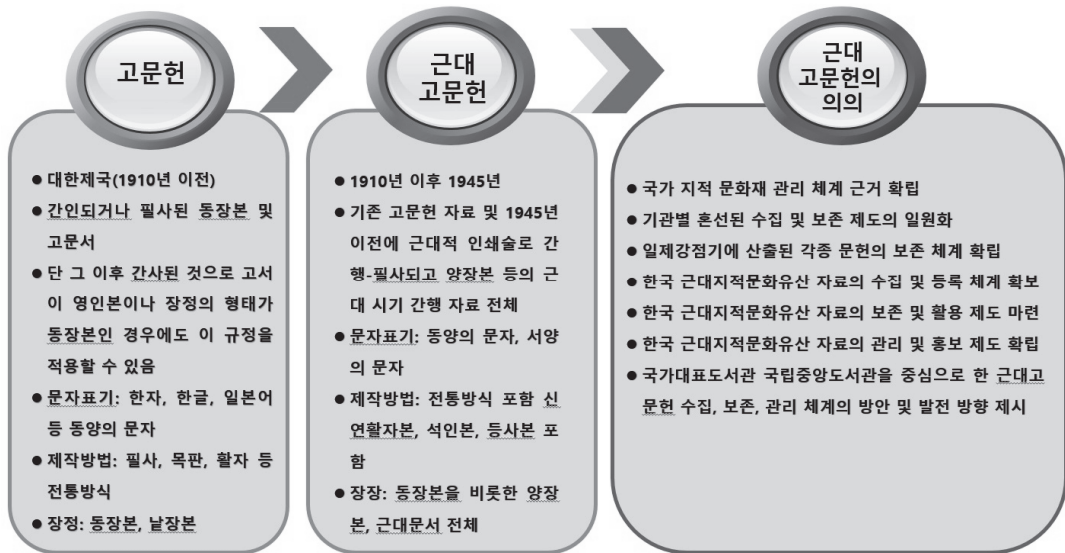
여섯째. 한국 근대지적문화유산 자료의 관리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이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전시 및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근대고문헌 제도의 운영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함. 국내 최대 근대고문헌 소장처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선진적 제도는 타 기관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그림 II-4〉 근대고문헌 제도 확립의 의의와 필요성



### III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조사 및 현황 실태

#### 1. 근대고문헌 조사

##### 1.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의 보존 및 관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서지학회와 공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시기적 추이 및 범주를 검토하고, 현재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고문헌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자료 중 24.2%가 1911년부터 1945년도에 발행된 장서임을 확인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고문헌의 시기 및 범주를 현재 『한국목록규칙(제4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1910년 이전 발행 문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하여 1945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sup>16)</sup>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중 1945년 이전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근대고문헌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자료의 수집, 정리, 관리, 보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1.2 조사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조사를 위하여 소장 자료의 목록데이터 중, 발행 연도가 1894~1945년이고<sup>17)</sup> 자료구분이 ‘단행’으로 설정된 자료를 반출하여 제공함.

16)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국립중앙도서관, 33쪽.

여기에서 연속간행물은 제외되었음.

- 제공받은 목록데이터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 CEC(조선총독부 동서), COC(조선총독부 고서), CWC(조선총독부 양서), DDC(듀이십진분류), KDC(한국십진분류), KDCP(박봉석 한국십진분류), GPO(미국정부간행물)로 구분된 121,172종 181,675책이었음.
- 제공받은 목록데이터의 확인 결과, GPO는 478종의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필름이었고, KDCP에는 석박사학위논문, 무구재古, 동곡古와 같은 고서 개인문고 6,261종 15,659책이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고, 아울러 고서(古書)로 분류된 COC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08,722종 140,245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자료의 발행 연도의 경우, 일본 연호를 서기(西紀)로 변환하고, 이를 “1XXX년대”의 형식으로 동일하게 정리하여 통계를 작성함.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	발행년도	시기구분
日韓合邦と日蓮聖人	清水梁山 著	唯一佛教團	明治43	1910년	1910년대
地方文廟一覽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朝鮮總督府學務局	大正13	1924년	1920년대
朝鮮文廟及陸廟概覽	小田省吾;魚允迪 合著	朝鮮史學會	大正13	1924년	1920년대

-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1900-1999”등 발행 연도가 범주 형식으로 입력된 자료나 “19XX, 추정” 등의 추정치가 입력된 경우, 직접 검색하여 정확한 발행 연도를 입력하였음.
- 검색 결과가 없는 자료는 앞선 발행 연도(예시의 경우, 1900년)로 분류하여 통계에 반영하였음. 또, 정리 과정에서 (1) 발행 연도 정보가 없거나, (2) 오류가 있는 자료는 각 자료별로 직접 검토하여 수정하였음.
  - 발행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는 ‘[發行年未詳]’, ‘[發行年不明]’, ‘[발행년미상]’, ‘[발행년불명]’ 등으로 입력되어 있거나, 발행 연도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직접 검색하여 작성하였음.

17) 1894년을 조사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선총독부의 근대고문헌 수집 시기를 고려한 결과임.

- 발행 연도가 1800년대 이전이나 1950년대 이후로 입력된 경우, 발행 연도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모두 검토 후 수정하였음. 특히 CEC 자료의 경우, 13종의 자료가 1950년대 이후로 잘못 입력되어 이를 수정함 (예, 大正 15년(1926년) 자료의 발행 연도가 1962년으로 입력된 사례.)

## 2. 수집 자료의 시기별 유형 및 특징

### 2.1. 일제강점기 수집 자료

□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제가 한국 통치에 필요했던 조선인에 대한 사상의 선도라는 지상 목표에 입각하여 만들어 낸 분류표와 목록법에 의하여 도서를 정리함. 따라서 모든 목록은 일본어순에 따라 배열하였고,<sup>18)</sup> 당시 입수된 자료들은 정본(正本)과 별본(別本)으로 나누고 이 중 정본은 신서(新書)·고서(古書)·양서(洋書)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분류표를 적용함.

〈표 III-1〉 조선총독부도서관 자료 등록 구분



□ 신서(新書)는 고서(古書)를 제외한 일반 동서(東書)로, 第1~10門에 각각 철학, 종교, 교육 사회, 법률 정치, 경제 통계, 어학 문학, 역사 지리, 의학 의학, 공학 군사, 산업 예술, 전서 잡찬으로 구분하고 각 문(門)은 다시 00-99까지의 번호를 부여함. 10문 이후에 ‘조선문(朝鮮門)’ 항목을 만들어 분류함.

□ 고서(古書)는 주로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전래된 도서를 그 범위로 하였는데 별치기호는 ‘古’를 사용하고 신서와 동일한 분류 체계에 의거하였고, 역시 10문 이후에 ‘조선문(朝鮮門)’을 배치하여 한국 고서의 경우, ‘古朝’라는 별치기호가 부여하고 여기에 00-99의 숫자를 조합하는 형태임.

18)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국립중앙도서관, 2009, 141-145쪽.

- 한국 고서의 분류체계는 古朝-00은 哲學 經學, 古朝-10은 諸子, 古朝-20은 宗教, 古朝-30은 政治 法律, 古朝-40은 語學, 古朝-50은 歷史, 古朝-60은 地理 風俗, 古朝-70은 土木 水利, 古朝-80은 農家 總記, 古朝-90은 全書 叢書임.
- 양서(洋書)는 당시에 동서(東書)와 대비되는 서서(西書)라고 하였고 1은 Philosophy Religion, 2는 Education Society, 3은 Law Politics, 4는 Economics Statistics, 5는 Languages Literature, 6은 History Geography, 7은 Science Medicine, 8은 Engineering Army, 9는 Industries Arts, 10은 General works Miscellany를 분류하였고 K-00~99에는 한국 관련 자료를, F는 소설, J는 아동서로 분류함.

〈표 III-2〉 조선총독부도서관 자료 구분 및 분류표

분류번호	양서부 분류표	분류번호	신서부 분류표
1	Philosophy Religion	第 1 門	철학 종교 哲學 宗教
2	Education Society	第 2 門	교육 사회 教育 社會
3	Law Politics	第 3 門	법률 정치 法律 政治
4	Economics Statistics	第 4 門	경제 통계 經濟 統計
5	Languages Literature	第 5 門	어학 문학 語學 文學
6	History Geography	第 6 門	역사 지리 歷史 地理
7	Science Medicine	第 7 門	이학 의학 理學 醫學
8	Engineering Army	第 8 門	공학 군사 工學 軍事
9	Industries Arts	第 9 門	산업 예술 産業 藝術
10	General works Miscellany	第 10 門	전서 잡찬 全書 雜纂
한국 관련 K-00~99	Korea (Manchria, Mongolia, Siberia)	朝鮮門 朝-00~99	朝鮮 附 (만주, 몽고, 시베리아)
F, FE/FF/FG/FI	소설 (영미/프랑스/독일/이탈리아)		
J	아동서		

분류번호	고서부 분류표	분류번호	고서부 중 조선문 분류표
第 1 門	哲學 宗教	古朝-00	哲學 經學 總記
第 2 門	教育 社會	古朝-10	諸子
第 3 門	法律 政治	古朝-20	宗教 總記
第 4 門	經濟 統計	古朝-30	政治 法律 總記
第 5 門	語學 文學	古朝-40	語學 總記
第 6 門	歷史 地理	古朝-50	歷史 總記
第 7 門	理學 醫學	古朝-60	地理 風俗 總記
第 8 門	工學 軍事	古朝-70	土木 水利
第 9 門	産業 藝術	古朝-80	農家 總記
第 10 門	全書 雜纂	古朝-90	全書 叢書
朝鮮門 古朝-00~99			

□ 1923년부터 1945년까지 22년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수집한 장서는 신서(新書) 138,441책, 고서(古書) 129,353책, 양서(洋書) 16,679책 등, 모두 284,443책<sup>19)</sup>으로 신서와 고서가 주를 이루었음.

〈표 III-3〉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수집 현황

연도	신서	고서	양서	합계
1923	2,013	6	3	2,022
1924	10,238	11,369	2,298	23,905
1925	2,536	183	84	2,803
1926	8,219	1,933	100	10,252
1927	4,590	5,065	176	9,831

19)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사』, 국립중앙도서관, 1973, 201쪽. 이 책에 수록된 장서 통계를 참고하였고 일부 수치의 오류를 수정하였음. 총 장서 수는 284,467책으로 기록되었으나 확인 결과 284,443책임. 이해은/김효경,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안정복 장서 수집과 자료적 특징」, 『고문서연구』 43, 고문서학회, 2013, 184쪽에서 재인용.

연도	신서	고서	양서	합계
1928	4,725	9,280	52	14,057
1929	6,639	11,799	308	18,746
1930	6,794	2,954	314	10,062
<b>소계</b>	<b>45,754</b>	<b>42,589</b>	<b>3,335</b>	<b>91,678</b>
1931	6,009	2,356	292	8,657
1932	4,311	2,728	150	7,189
1933	4,962	3,846	130	8,938
1934	5,306	3,075	259	8,640
1935	6,780	2,850	211	9,841
<b>1931-1935</b>	<b>27,368</b>	<b>14,855</b>	<b>1,042</b>	<b>43,265</b>
1936	6,809	6,708	552	14,069
1937	7,512	4,204	1,062	12,778
1938	6,752	9,536	1,997	18,285
1939	6,939	5,575	722	13,236
1940	6,000	5,859	1,416	13,275
<b>1936-1940</b>	<b>34,012</b>	<b>31,882</b>	<b>5,749</b>	<b>71,643</b>
1941	8,110	11,315	1,973	21,398
1942	8,146	11,927	1,402	21,475
1943	8,081	8,106	1,975	18,162
1944	5,867	7,076	727	13,670
1945	1,103	1,573	476	3,152
<b>1941-1945</b>	<b>31,307</b>	<b>39,997</b>	<b>6,553</b>	<b>77,857</b>
<b>합계</b>	<b>138,441</b>	<b>129,353</b>	<b>16,679</b>	<b>284,443</b>

## 2.2. 해방기 수집 자료

- 국립도서관 개관 직후 만들어진 박봉석(朴奉石)편 한국십진분류표는 당시 도서관 부관장이었던 박봉석이 1946년 1월 말 분류표의 초안을 완료하고, 1946년 2월부터 『동서도서분류표』라고 이름을 정한 분류표에 따라 새로 등록된 도서를 정리하기 시작함.



- 1947년 10월 15일 『조선십진분류표』로 이름을 바뀐 국판 126페이지로 초판을 발행함. 6·25 전쟁으로 절판되자 『한국십진분류표(KDCP)』라고 책 이름을 바꾸어 1954년 9월 등사 인쇄로 재판을 발행함.
- 동양서와 고서는 1946년 2월부터 박봉석 한국십진분류표로 분류하였고, 서양서는 1946년 10월 20일부터 듀이십진분류법 제14판에 의해 분류하다 1984년 부터는 동양서와 비도서자료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만든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3판을 적용하기 시작함.
- 현재는 국내서와 동양서(중국서·일본서)·비도서자료·온라인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서양서는 듀이십진분류법(DDC), 고서는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판(KDCP)을 각각 적용하고 있음.

〈표 Ⅲ-4〉 국립중앙도서관 분류법 적용 현황

종류		시기	분류법
동양서	단행자료	1945년 이전	신서부 분류표(新書部 分類表)
		1945-1983년	한국십진분류표(KDCP)
		1984년 이후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비도서자료	1966-1983년	한국십진분류표(KDCP)
		1984년 이후	한국십진분류법(KDC)
	연속간행자료	1945-1983년	한국십진분류표(KDCP)
		1984년 이후	한국십진분류법(KDC)
	고문헌	1945년 이전	고서부분류표(古書部分類表)
		1946년 이후	한국십진분류표(KDCP)
서양서	단행자료	1945년 이전	양서부분류표(洋書部分類表)
		1946년 이후	듀이십진분류법(DDC)
	연속간행자료	1945년 이전	양서부분류표(洋書部分類表)
		1946년 이후	듀이십진분류법(D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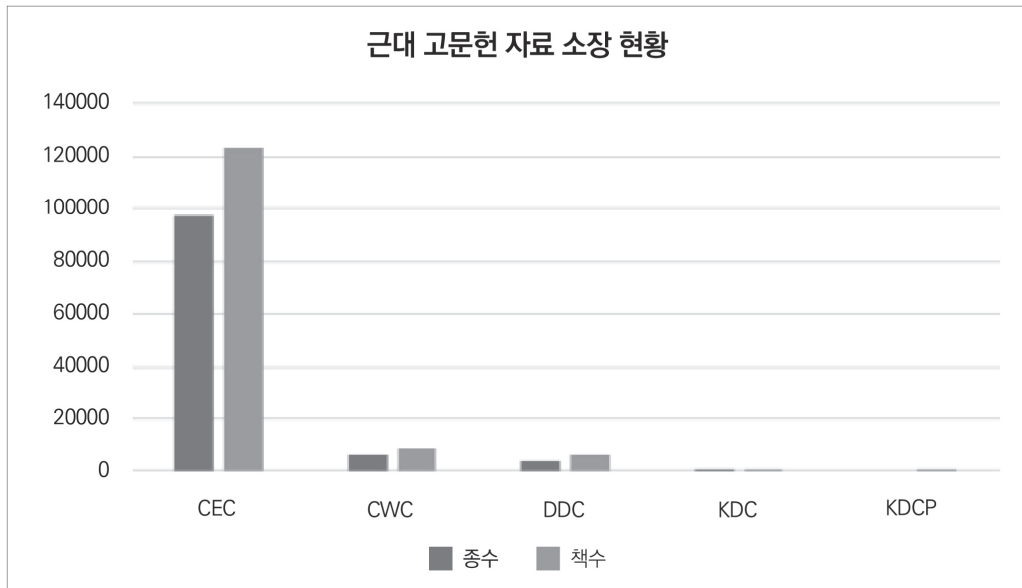
- 1963년 10월 28일 공포된 「도서관법」에 의해 1965년부터 국내 출판물 납본이 의무화되면서 국가문헌 수집이 가능해져 장서 수집량은 증가하였고, 2022년 9월 30일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국내서 9,899,372책, 외국서 1,655,487책, 비도서 1,831,417책(점), 고문헌 299,194책 등 총 13,685,470책(점)임.

### 2.3. 근대고문헌의 총량 및 특징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분류기준별 현황은 CEC가 123,419책으로 88.00%를 차지하고 있으며 CWC가 8,798책으로 6.27%임.

〈표 Ⅲ-5〉 조사대상 자료의 분류 기준별 수량

분류기준	종수	책수	비율
<b>CEC</b>	<b>97,121</b>	<b>123,419</b>	<b>88.00%</b>
CWC	6,543	8,798	6.27%
DDC	4,278	6,626	4.72%
KDC	506	941	0.67%
KDCP	274	461	0.33%
총합	108,722	140,2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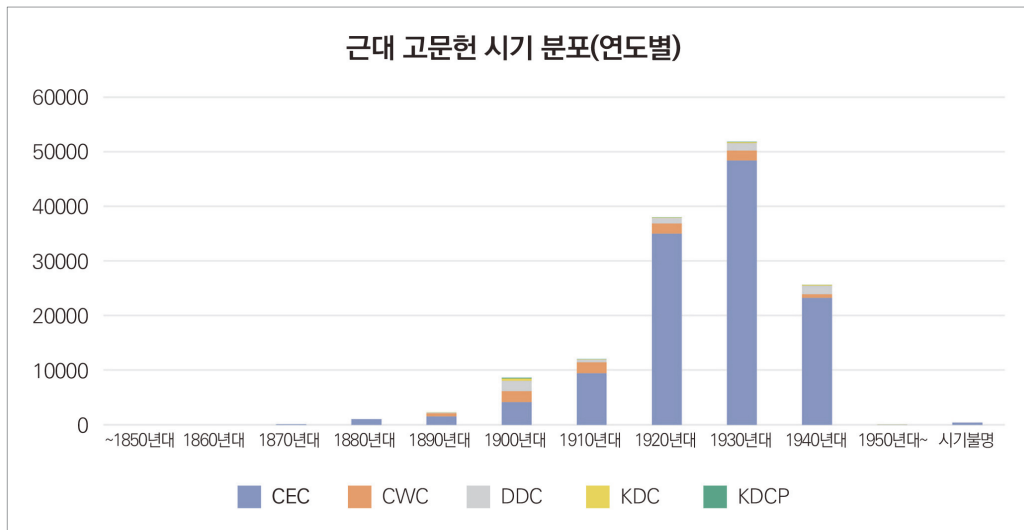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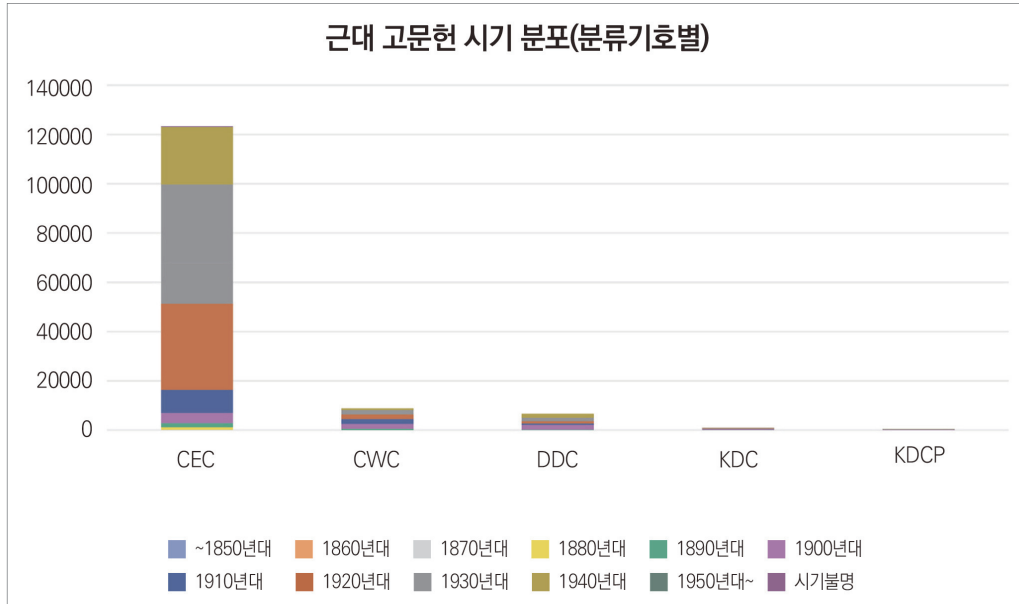
〈그림 Ⅲ-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 고문헌 자료 소장 현황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발행시기는 1930년대가 51,876책으로 36.99%, 1920년대가 38,034책으로 27.12%, 1940년대가 25,643책으로 18.28%를 차지하여 82%의 자료가 1920-1940년대에 해당함.

〈표 Ⅲ-7〉 조사대상 자료의 분류 기준별 수량

시기구분	책수	비율
~1850년대	2	0.00%
1860년대	7	0.00%
1870년대	116	0.08%
1880년대	1,067	0.76%
1890년대	2,361	1.68%
1900년대	8,608	6.14%
1910년대	12,018	8.57%
<b>1920년대</b>	<b>38,034</b>	<b>27.12%</b>
<b>1930년대</b>	<b>51,876</b>	<b>36.99%</b>
<b>1940년대</b>	<b>25,643</b>	<b>18.28%</b>
1950년대~	61	0.04%
시기불명	452	0.32%
합계	140,2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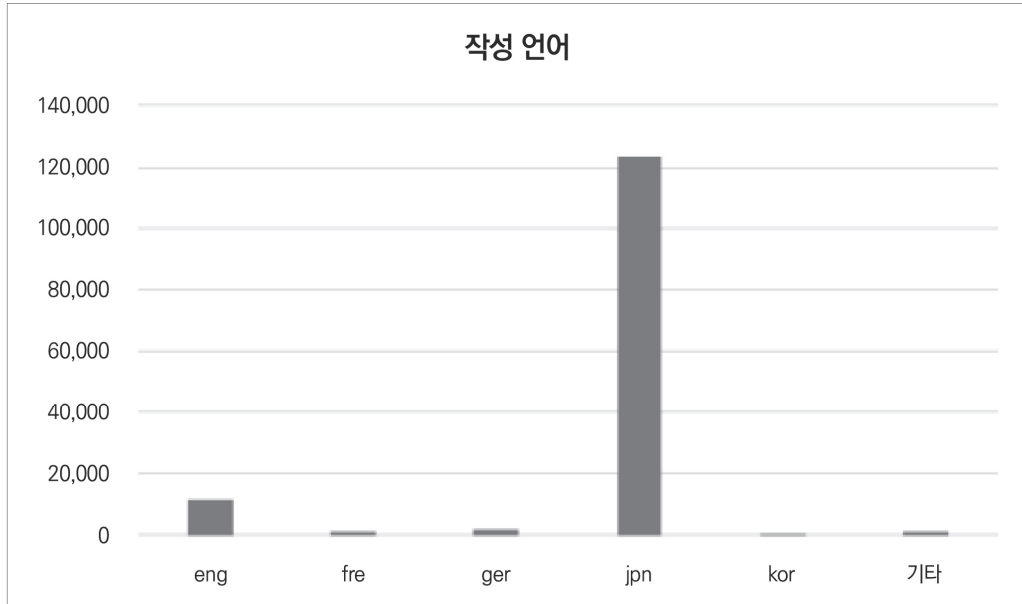
〈그림 Ⅲ-8〉 국립중앙도서관 근대 고문헌 시기별 분포 현황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사용 언어는 일본어가 123,575책으로 88.11%이며, 영어는 11,328책으로 8.08%임.

〈표 Ⅲ-9〉 조사 대상 자료의 언어 구분별 수량

언어구분	책수	비율
eng	11,328	8.08%
fre	1,145	0.82%
ger	1,902	1.36%
<b>jpn</b>	<b>123,575</b>	<b>88.11%</b>
kor	889	0.63%
기타 <sup>20)</sup>	1,406	1.00%
합계	140,245	100%

20) 0.5% 미만의 항목은 기타로 표기, 해당 언어는 chi, dan, dut, enm, epo, gre, hin, ita, lat, may, mnc, mon, mul, nor, pol, por, rus, san, spa, swe, tha, tib, tur, und, 추정불가로 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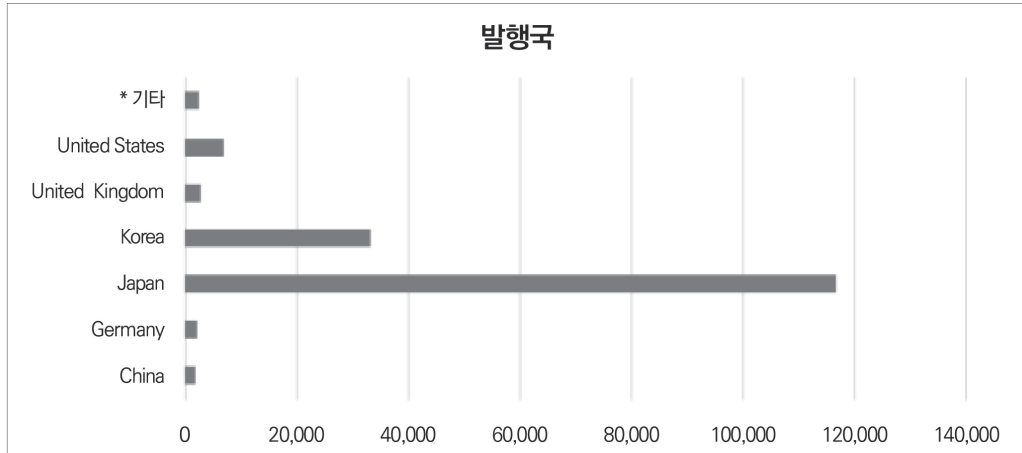


〈그림 III-10〉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언어 구분별 수량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발행국은 일본이 116,719책으로 83.11%이며, 한국은 8,379책으로 5.97%임.

〈표 III-11〉 조사대상 자료의 발행국 별 수량

발행국 부호	책수	비율
China	1,620	1.16%
France	1,160	0.83%
Germany	2,016	1.44%
<b>Japan</b>	<b>116,552</b>	<b>83.11%</b>
Korea	8,379	5.97%
United Kingdom	2,654	1.89%
United States	6,706	4.78%
기타 <sup>21)</sup>	1,158	0.83%
합계	140,2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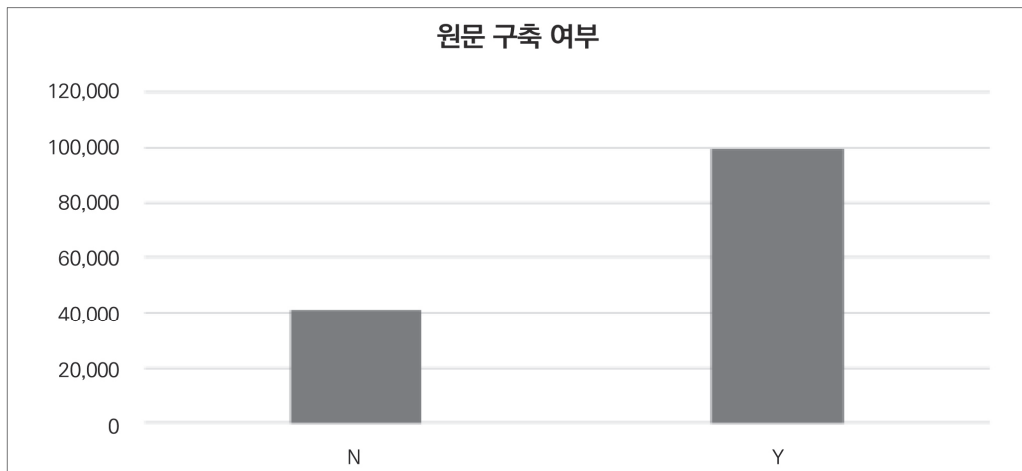


〈그림 III-1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발행국 별 수량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원문데이터는 99,444책인 70.91%가 구축 완료되었음.

〈표 III-13〉 조사대상 자료의 원문데이터 구축 현황

원문 구축 여부	책수	비율
N	40,801	29.09%
Y	99,444	70.91%
합계	140,245	100%



〈그림 III-1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원문데이터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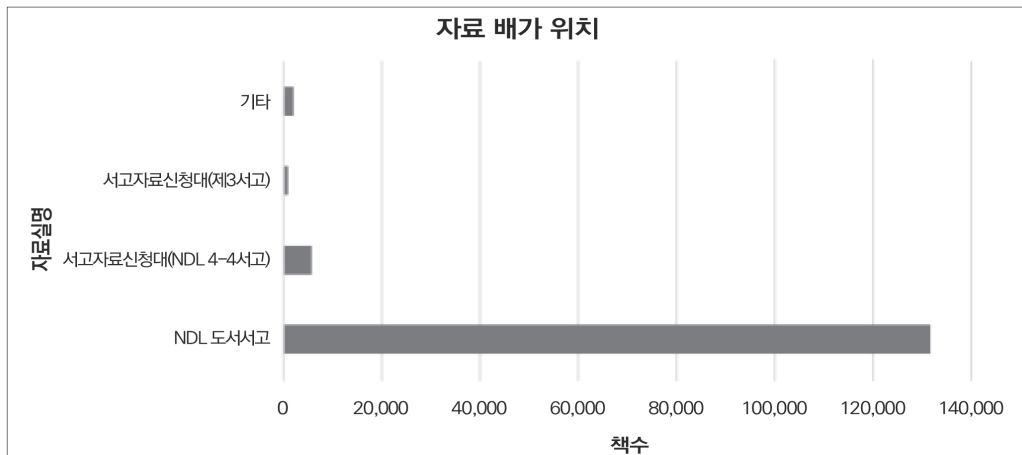
21) 0.5% 미만의 51개 항목은 기타로 표기.

### 3. 수집 자료의 운영 현황

- 조사대상 근대고문헌의 93.95%에 해당하는 131,762책은 NDL도서서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각주 22>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내 각 서고에 분산되어 있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는 자료보존연구센터, 고문헌과, 장서개발과 등으로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표 III-15〉 근대고문헌 배가위치와 소관부서 현황

자료실명	책수	비율	소관부서
<b>NDL도서서고</b>	<b>131,761</b>	<b>93.95%</b>	자료보존연구센터
서고자료신청대(NDL 4-4서고)	5,701	4.07%	장서개발과
서고자료신청대(제3서고)	928	0.66%	고문헌과
기타22)	1,855	1.32%	-
합계	140,245	100%	



〈그림 III-1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배가위치와 소관부서 현황

22) 1% 미만의 17개 항목은 기타로 표기. NDL비도서 3-1 서고, NDL비도서 3-2 서고, 고문헌실, 고문헌실(개가), 귀중본서고, 근대문학(서고), 문학실, 북한자료실(서고), 서고자료신청대, 서고자료실(서양서), 신문자료실(NDL 4-3 서고), 신문자료실(서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양서, 본관보존), 연구자료실(역삼동), 자료보존관(고서), 정부간행물실(NDL 4-3 서고), 특수자료실.

## 4. 수집 자료의 운영 방향

### 4.1. 공간 측면: 서고 확충의 필요성

- 조사 결과, 1920~1940년대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근대고문헌의 범주와 세부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의 특성에 맞는 보존 환경을 구비한 서고 확보가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연대별 섬유분석 결과<sup>23)</sup>를 보면 1910년~1980년 이전 자료들은 pH 4-5로 산성으로 측정되었고, 발행 연도 별 섬유의 특성과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종이의 재질특성, 섬유종류, 첨가제 분석 등 물리화학적 측면에서의 대상 자료 상태조사를 통하여 근대고문헌 자료에 적합한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자료의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서고 확충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소관부서의 일원화를 통하여 자료관리와 열람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조사 대상 근대고문헌 14만여 책의 보존을 위한 서고는 밀집서가형인 경우 304㎡, 고정서가형인 경우 742㎡가 필요하며, 기록물 관리 표준에 의거하면 1,386㎡의 수장 공간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단행자료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근대고문헌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23만여 책을 수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고문헌 서고 규모인 1,666㎡ 이상을 확보하여 자료 관리에 대비해야 함.

---

23) 이귀복 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연대별 섬유분석집』, 국립중앙도서관, 2009.



〈표 III-17〉 근대고문헌 보존서고 면적 산출

기준	면적(㎡)
보존서고 수장공간 산출 모형 <sup>24)</sup> (밀집서가형)	304
보존서고 수장공간 산출 모형 (고정서가형)	74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 기준 <sup>25)</sup>	1,386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고서고	1,666
합계	

## 4.2. 인력 측면: 전문 인력 운영의 필요성

- 근대출판 및 근대문헌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지목록의 고도화, 자료 해제, 자료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특히 상당수의 자료가 일본어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한 상황임.
- 근대고문헌 자료는 소급목록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집 당시 작성된 목록을 기초로 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KORMARC)의 요소가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해당 자료에 대한 서지목록 고도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문헌을 판독하고 편목할 수 있는 고전 및 근대 일본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근대 시기 문헌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저작권 만료 자료는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공개해야 함.

24) 윤희윤, 「대학도서관 공동 보존 서고 설립 · 운영모형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5(3),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4, 37-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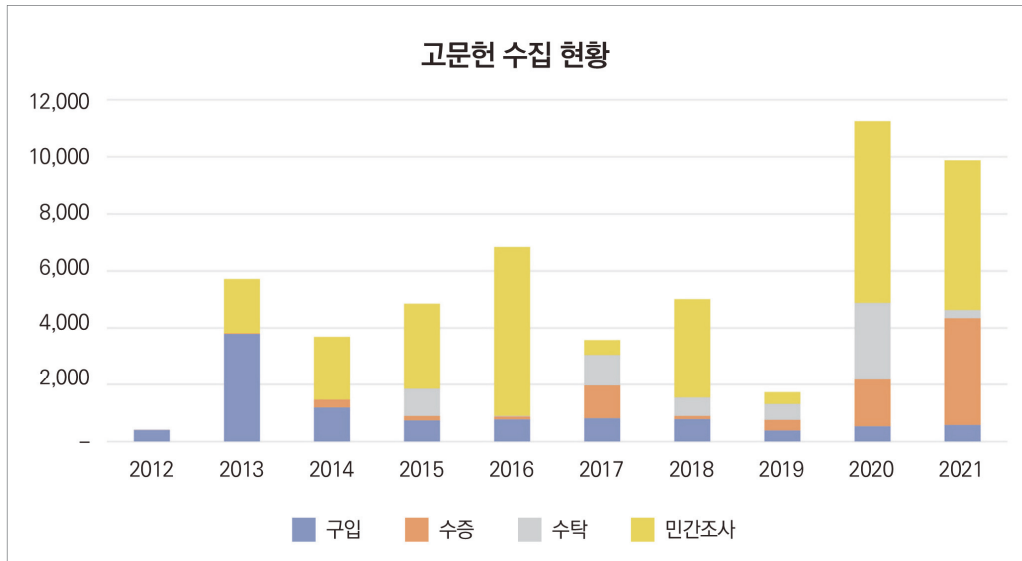
25) 국가기록원 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 환경 표준』, 국가기록원, 2021.

#### 4.3. 자료 수집 측면: 조사에 따른 제반 논의

- 지난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의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수집 방법은 구입, 수증, 수탁, 민간조사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구입의 경우 2013년 3,792책, 2014년 1,190책의 수집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연간 500책 내외의 고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고문헌 구입은 구입 대상 미소장 자료의 확보, 유통 가격의 상승, 구입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표 Ⅲ-18〉 고문헌 수집 현황 (2012-2021년)

	구입	수증	수탁	민간조사
2012	403	7	6	-
2013	3,792	0	-	1,904
2014	1,190	279	-	2,222
2015	741	155	955	3,004
2016	778	102	22	5,941
2017	818	1,150	1,080	530
2018	790	103	654	3,465
2019	387	373	560	410
2020	538	1,638	2,703	6,373
2021	580	3,763	289	5,250
<b>합계</b>	10,017	7,590	6,269	29,099



〈그림 III-19〉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수집 현황 및 동향(2012~2021년)

- 반면 수증과 수탁의 경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수증의 경우 2019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자료 수증과 수탁의 증가는 자료 관리에 대한 개인 소장가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보존 공간과 적절한 보존 환경의 제공, 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조사의 경우, 자료정리를 위한 전문가가 부재한 기관 및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해 목록 작성과 주요 자료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장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증과 기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수집 방법임.
- 따라서 고문헌과 같은 수집 정책을 근대고문헌에도 적절히 도입하여 근대고문헌의 기증과 기탁 유도 캠페인 전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전략, 기증자 예우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함.

## IV 국내 주요 기관 근대고문헌 소장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

### 1. 조사의 목적, 필요성, 방법

####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근대고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은 물론 개인 장서가가도 상당한 수량을 소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총량 확인 및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임. 그 이유는 각 기관에서 이 자료를 일반도서로 분류하고 있거나, 개인의 경우 자신의 소장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를 염두에 두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 및 개인 장서가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현황과 총량을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근대고문헌은 자료의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주요 자료가 산일(散逸)되고 있기에, 국가 지적(知的)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 자료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IV장의 목적임.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을 일반도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근대고문헌이 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서지학회에서 정의(定義) 내린 근대고문헌의 개념에 의거하여,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인쇄 출판술로 간행·필사되고 양장본 등의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sup>26)</sup>를 조사함. IV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 기관의 소장 자료 총량 및 실태 확인, 고문헌의 총량 파악 작업을 진행하였고, 근대고문헌의 총량 추정, 근대고문헌의 보존·수집·관리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

26)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21, 33쪽.

## 1.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각 기관의 실태와 총량의 파악은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 용역 발주 사업을 통하여 진행됨. 그 결과 국립도서관 3개 기관, 공공도서관 37개 기관, 국공립 대학도서관 19개 기관, 사립 대학도서관 67개 기관, 연구기관 3개관, 기타 45개 기관 등 전체 174개 기관에서 대략 300만여 점의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sup>27)</sup>
-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174개 기관 중에는 고문헌만이 아니라, 근대고문헌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해당 기관은 43개 기관으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기타 기관으로 구분됨. 해당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 기관 및 공공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이상 8개 기관)
  - 대학도서관(사립 및 국/공립대학 포함):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울곡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이상 33개 대학)
  - 기타 기관: 화봉문고, 현담문고(이상 2개 기관)

---

27)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18, 6쪽.

-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각 기관의 현황과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 2018년 이후에, 근대고문헌의 수집 · 관리 · 전시 등을 목적으로 국/공립기관의 새로 설립되고, 기타 업체 등이 등장함. 해당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국/공립기관, 기타 기관으로 구분됨. 해당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 기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송파책박물관(이상 3개 기관)
  - 기타: 인터넷 경매업체(이상 1개 기관)
-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이 구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1,800여 개 공공 · 전문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의 자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확인됨. 해당 기관은 13개 국/공립기관이며, 해당 기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기관: 4.19혁명기념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자료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실,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서울도서관, 송파도서관, 정독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상 13개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각 기관의 현황과 실태 파악은 위에서 제시한 국/공립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 24개 기관, 대학도서관 33개 기관, 기타 3개 기관까지 전체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근대고문헌 소장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각 소장 기관의 소장 자료 전체 총량 및 각 소장 기관의 고문헌 총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검색 작업).
  - 각 소장 기관의 소장 자료 전체 총량에서, 고문헌 총량을 제외하고,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인쇄 출판술로 간행 · 필사되고 양장본 등의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를 조사함(이때 연속간행물 등은 제외함).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근대고문헌 자료의 총량을 제시함.

-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한 근대고문헌의 경우, 총량만 제시함.
- 고문헌 총량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결과의 대조 확인 작업을 진행, 고문헌으로 분류된 자료 중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에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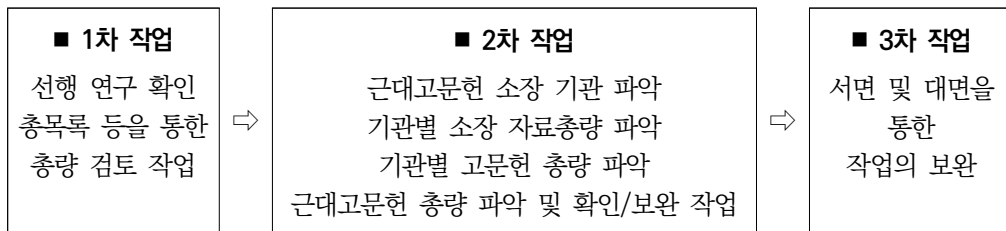
〈표 IV-19〉 근대고문헌 조사 대상 기관표

구분	번호	기관명	구분	번호	기관명
국/공립 기관 공공 도서관	01	4.19혁명기념도서관	대학 도서관	32	국민대학교
	02	경남대표도서관		33	단국대학교(울곡도서관)
	03	국립고궁박물관		34	대구가톨릭대학교
	04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35	동국대학교(서울)
	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36	동덕여자대학교
	06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자료실		37	서강대학교
	07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08	국립한글박물관		39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09	국사편찬위원회		40	성균관대학교(서울)
	10	국회도서관		41	숙명여자대학교
	11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42	숭실대학교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실		43	안동대학교
	13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44	연세대학교(서울)
	14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45	영남대학교
	15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46	용인대학교
	16	서울도서관		47	울산대학교
	1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48	원광대학교

구분	번호	기관명	구분	번호	기관명
	18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49	이화여자대학교
	19	송파도서관		50	장로회신학대학교
	20	송파책박물관		51	전남대학교
	21	정독도서관		52	전북대학교
	22	한국근대문학관		53	전주대학교
	23	한국사회과학도서관		54	조선대학교
	24	한국학중앙연구원		55	충남대학교
대학 도서관	25	강남대학교,	기타 기관	56	충북대학교
	26	건국대학교(서울)		57	한양대학교(서울)
	27	경기대학교		58	화봉문고
	28	경상국립대학교		59	현담문고
	29	경희대학교(서울)		60	인터넷 경매업체
	30	계명대학교	참조	국가자료종합목록 (KOLIS-NET)	
	31	고려대학교(서울)			
			합계	60개 기관	

□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60개 주요 기관의 근대고문헌 현황과 총량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함.

〈표 IV-20〉 근대고문헌 현황 및 총량 파악을 위한 작업 과정도





**□ 1차 작업: 선행 연구 확인 및 총 목록 등을 통한 근대고문헌의 총량 검토 작업**

- 『출판대감(出版大鑑)』(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 1950)』(오영식, 소명출판, 2009) 등에서,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근대 고문헌의 종수 및 총량을 파악.
- 초판(初版)의 간행 부수를 당시 보편적인 기준이었던 200부로 산정하고, 현재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전체 발행의 50%로 추산하여, 근대고문헌의 총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2차 작업: 60개 기관별 근대고문헌 소장 실태 및 총량 파악 작업**

- 각 소장 기관의 전체 소장 자료 총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
- 각 소장 기관의 고문헌 총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조사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함).
- 각 소장 기관의 전체 소장 자료 총량에서 고문헌 총량을 제외하고,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인쇄 출판술로 간행 · 필사되고 양장본 등의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를 조사함. 이때 연속간행물(잡지 등) 등은 제외하였음.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소장 자료의 총량을 제시함.
- 고문헌 총량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결과 확인, 고문헌에서 근대고문헌을 재분류하는 작업 진행. 이때 각 기관에서 확인된 비율을 산정함. 이를 근거로 고문헌으로 분류된 자료 중에서 근대고문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총량을 제시함.

**□ 3차 작업: 근대고문헌 소장 실태의 보완 작업**

- 근대고문헌 소장 실태 파악의 보완을 위하여 근대고문헌 소장 주요 기관 담당의 대면 및 서면 면담 진행(한글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송파책 박물관 등). 대외 비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밝히지 않음.

## 2. 근대고문헌 자료 구축의 현황

### 2.1.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거하여 작업을 진행함.
- 국/공립기관의 근대고문헌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소장 자료의 총량, 고문헌의 총량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전체 소장 자료의 총량에서 고문헌의 총량을 뺀 다음에, 근대고문헌의 총량을 확인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의 검색 작업을 다시 진행함.
- 국/공립기관의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1945년 이전의 간행된 자료로 한정하여 검색하고 총량을 파악한 것임(단, 연속간행물은 제외함).
-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한 근대고문헌의 경우, 총량만 제시함.

〈표 IV-21〉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실태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01	4.19혁명 기념 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8건이 확인됨.
02	경남대표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1건이 확인됨.
03	국립 고궁박물관	- 2022년 10월 기준, 고문헌의 총량은 744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5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대다수의 자료는 왕실 문화와 관련된 자료, 사대부가(士大夫家)에

28)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참조.

29)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참조.

30) 국회도서관 누리집 참조.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p>서 소장했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제국시기의 간행된 각종 근대고문헌 자료를 예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으나, 구매한 결과는 차후에 순차적으로 등록할 계획 이기에 근대고문헌의 수량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li> <li>- 왕실문화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 자료를 연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음.<sup>28)</sup></li> </ul>
04	국립 민속박물관 자료실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5건이 확인됨.
05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31건이 확인됨.
06	국립 중앙극장 공연예술자료실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건이 확인됨.
07	국립 중앙박물관 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313건이 확인됨.
08	국립 한글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83,19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현재 등록 자료 35,889점).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547여 건(현재 등록 자료 기준)을 소장하고 있음.</li> <li>-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기관.</li> <li>-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li> <li>- 국내 중요 근대고문헌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li> </ul>

31)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32)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33) 서울시교육청 해방 전 일서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 코리안 메모리 누리집 참조.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09	국사편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36,80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55,953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86,104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 중요 자료, 주제별 주요 자료 등을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29)</sup></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전문 인력 다수를 배치하여 운영 중).</li> <li>-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국사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수증/수탁하고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음.</li> </ul>
10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4,778,85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4,697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9,200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 중요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30)</sup></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ul>

34) 서울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누리집 참조.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및 근대고문헌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사서 186명이 배치. 자료 조직과에서 전문 인력 다수를 배치하여 운영 중).</li> </ul>
11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22,06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854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921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 중요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낙육재 기증 자료 중에서, 103권을 선별하여 일제강점기 자료로 명명하고, 누리집을 통해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31)</sup></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을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을 위한 전문 인력 있음(자료 봉사팀에서 전문 인력 1인을 배치하여 운영 중).</li> </ul>
12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87건이 확인됨.</li> </ul>
13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455,125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18,3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sup>32)</sup></li> <li>- 근대고문헌을 광복 전(前) 일서(日書)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022년까지 1,911책에 관한 해제집을 간행하였음.</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 중요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근대 한일 외교 자료가 대표적인 사례임).</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장서 개발과에서 전문 인력 1인을 배치하여 운영 중).</li> </ul>
14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12건이 확인됨.
15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8건이 확인됨.
16	서울도서관	-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건이 확인됨.
1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06,54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51,357여 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sup>33)</sup></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 중요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제강점기에서 1945년까지 간행된 문학 자료만을 별도로 관리하여, 한국 문학 자료관을 설치하였고, 남산도서관 소장 한국문학 초판본 목록 등을 발간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정보 자료과에서 전문 인력 1인을 배치하여 운영 중).</li> </ul>
18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78,34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28,281여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sup>34)</sup></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 중요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정보 서비스팀에서 전문 인력 1인을 배치하여 운영 중).</li> <li>- 일제강점기 경성도서관으로 운영되었음.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자료집 및 목록 등을 발간하고 있음.</li> </ul>
19	송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건이 확인됨.</li> </ul>
20	송파책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근대고문헌 4,082건을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기증/기탁자의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li> <li>-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 제도를 운영 및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진행.</li> <li>- 국내 중요 근대고문헌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li> </ul>
21	정독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310건이 확인됨.</li> </ul>
22	한국근대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자료의 총량은 대외비.</li> <li>- 한국근대문학을 주제로 한 특화된 문학관.</li> <li>- 2022년 10월 기준 근대고문헌은 5,20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문학의 범주를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로 설정함.</li> <li>- 근대고문헌의 주요 분야인 근대문학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li> <li>- 근대고문헌의 자료 구입.</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외부 수장고 설비).</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시, 출판 사업 등을 진행.</li> </ul>
23	한국사회과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통해서 확인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3건이 확인됨.</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611,077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14,765건으로 확인됨. 고문헌의 상당수는 개인 기증본 문고로 구성됨(남애문고, 하성문고, 산공문고, 무현문고, 고원문고, 도산문고, 천남문고, 춘포문고, 약헌문고, 향산문고, 현석문고, 손호철문고 등). 해당 문고본을 유형별, 주제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49,632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 중요 자료를 디지털 장서각,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도서관, 한국학 자료포털 등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li> <li>- 서지사항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폐가제 운영, 관내 열람으로 운영.</li> <li>-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각 소장처의 정보를 지역별로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li> <li>- 기증 기탁 제도를 운영하여 고문헌 및 근대고문헌을 수집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장서각 자료보존관리팀에서 전문 인력 19인(인턴 4인 포함)을 배치하여 운영 중).</li> </ul>

-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267,677건으로 추정됨.
-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은 1945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를 일반도서로 분류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이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 이 경우에, 근대고문헌을 ‘일제강점기, 해방 전 일서, 일제강점기~해방기 문학도서’ 등으로 명명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은 근대고문헌을 고문헌 관리 시설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고문헌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근대고문헌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은 최근에는 기증 및 기탁 제도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의 수량이 확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2. 대학도서관

- 대학도서관은 2022년 기준으로, 총 459개 기관이 있음[일반대학 217개, 전문대학 135개, 대학원대학 44개, 기타(교육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63개].
- 대학도서관 459개 기관 중에서,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33개 기관으로 파악됨. 각 기관은 고문헌을 소장하면서 동시에 근대고문헌도 소장하고 있음.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총량은 각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함.
- 대학도서관 33개 기관의 근대고문헌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고문헌의 총량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전체 소장 자료의 총량에서 고문헌의 총량을 뺀 다음에, 근대고문헌의 총량을 파악함.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색 작업을 진행함.

- 대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의 총량 파악은 1945년 이전의 간행된 자료로 한정하여 검색하고 파악한 것임(단, 연속간행물은 제외함).

〈표 IV-22〉 대학도서관 근대고문헌 실태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01	강남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54,15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01건으로 확인(이상보 기증본에 근대고문헌이 다수 포함됨. 이 자료는 별치기호 'H'를 부여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은 11,079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02	전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360,22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1,306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3,389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03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321,54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4,376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2,971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04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310,54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84,046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24,529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sup>35)</sup></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헌 관리 규정 내에서, 근대고문헌을 근현대 귀중 및 희귀자료로 명명하여 관리하고 있음.<sup>36)</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05	경희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606,85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4,181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25,826여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sup>37)</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0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159,543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78,400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41,622여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sup>38)</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07	고려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3,182,467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4,322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63,362여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귀중서 고서, 연속간행물, 단행본, 딱지본 고소설, 경성지방 법원문서, 고신문, 고서배접, 구한국 외교문서 등).<sup>39)</sup></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08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453,56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07,638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3,459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09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998,36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9,690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9,887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고문헌 관리 규정에서 근대고문헌을 준고서(準古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sup>40)</sup></li> <li>- 근대고문서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10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399,33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4,365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6,924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35)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남명학 고문헌 시스템 누리집 참조.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11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634,65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32,224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6,024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li>-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12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54,29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441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105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13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273,638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3,748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2,698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1)</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고문헌 251,795건, 일반자료(도서, 마이크로 필름 등) 66,05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6,458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2)</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보존처리 전문 인력 배치, 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5,109,942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83,194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96,534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3)</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16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155,845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84,150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20,716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은 희귀본(귀중본, 준귀중본) 등으로 자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4)</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17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288,81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0,073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1,278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
18	숭실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141,615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309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11,403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19	국립 안동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829,598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1,399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8,181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20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726,922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92,616건으로 확인됨. 근대고문헌은 27,176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을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sup>45)</sup></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6)</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li> </ul>
21	영남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863,42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98,752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8,75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담당자가 병행).
22	용인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424,22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9,693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4,145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23	울산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141,36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4,392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136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24	원광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603,90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8,314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5,755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25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747,293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2,449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7,348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을 준고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의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sup>47)</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관리자가 병행).</li> </ul>
26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422,18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5,785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4,163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sup>48)</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27	전남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2,002,997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30,913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9,72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송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798종 1,531책의 고문헌을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자료 중의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의 일부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sup>49)</sup></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있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있음(고문헌 관리자가 병행).</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28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836,435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14,380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822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29	전주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644,763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8,037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6,367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30	조선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405,013건의 자료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4,852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2,76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31	충남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847,007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46,887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9,000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32	충북대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347,762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2,596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6,725여 건</li> </ul>

번호	기관명	근대고문헌의 현황 및 기타 상황
		<p>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li>- 최근 문중(門中)과 개인의 기증/기탁이 활발한 상황.</li> <li>- 기증/기탁자의 개인문고 설치 및 별도의 예우 제도 등을 운영.</li> </ul>
33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1,749,47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의 총량은 8,863건으로 확인. 근대고문헌은 10,443여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특별 시설 없음.</li> <li>-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없음.</li> </ul>

□ 33개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544,160건으로 추정됨.

- 
- 36)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규정 〈고문헌 도서관 운영 지침〉 참조.  
37)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3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누리집 참조.  
39) 고려대학교 도서관 누리집 참조.  
40)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참조.  
41) 서강대학교 로울라 도서관 누리집 참조.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누리집 참조.  
4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44)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45)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규정집 〈학술정보원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참조.  
46)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누리집 참조.  
47)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누리집 참조.  
48) 장로회신학도서관 누리집 참조.  
49)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 참조.

- 33개 대학도서관에서는 1945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를 대부분 ‘일반도서’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관[경상국립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는 이 자료를 ‘준고서(準古書)’ 등으로 명명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 33개 대학도서관에서는 근대고문헌 중에서, 귀중본은 고문헌 관리 시설에서, 기타 자료는 일반 서가에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고문헌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근대고문헌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예 일반서가에서 일반도서와 함께 관리되는 상황도 많음.
- 33개 대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중에서 귀중본을 선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귀중본을 대상으로 한 관련 도서,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기증 및 기탁 제도를 통해서, 근대고문헌의 수량이 확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3. 기타 기관

- 근대고문헌의 수집 및 보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타 기관에는 화봉문고, 현담문고, 인터넷 경매업체,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등이 있음.

〈표 IV-23〉 기타 기관 근대고문헌 실태

	기관명	근대고문헌 및 관리 현황
01	화봉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 기준, 총 104,600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고문헌 및 근대고문헌의 소장, 해당 자료의 경매 등을 수행함.</li> <li>- 근대고문헌은 30,000여 권(문학서, 교과서 등)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음.</li> <li>- 2022년 9월 여승구 회장 별세 후, 현재 업체가 휴업 중인 상황.</li> </ul>
02	현담문고 (구 아단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기준, 총 89,15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li> <li>- 한국 근현대자료를 주제로 한 특화된 기관.</li> <li>- 근대고문헌은 5,049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음.</li> </ul>

	기관명	근대고문헌 및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단(雅丹) 강태영 여사가 수집했던 고전적과 근현대 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li> <li>- 2005년 재단법인 아단문고를 설립. 현재 '현담문고'로 명칭 변경.</li> <li>-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간행된 희귀 단행본과 신문, 잡지, 신문 스크랩, 주요 문인들의 육필 원고 등을 소장하고 있음.</li> <li>- 잡지 수집가였던 백순재 소장본을 비롯하여, 다수의 구할자본 소설 및 필사본 소설을 소장하고 있음.</li> <li>- 국내 중요 근대고문헌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li> </ul>
03	참조 인터넷 경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경매업체는 현재 월 평균 45만 건 이상(고문헌, 근대고문헌, 기타 물품 등 포함)을 거래하고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은 수요자가 많아서 매번 경매에서 인기리에 경매가가 진행 중에 있음.</li> <li>- 근대고문헌은 온라인, 현장 경매, 기획 경매, 전문 쇼핑몰 운영 등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li> <li>- 인터넷 경매업체의 현황은 일반인들의 근대고문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li> </ul>

- 기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35,049건으로 추정됨.
- 기타 기관은 근대고문헌을 전문적으로 수집 · 보존 · 관리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관리 실태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타 기관은 근대고문헌의 희귀본, 귀중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해당 기관과 연계한 근대고문헌 관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담문고와 함께 근대문학서적과 관련된 아카이브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기타 기관은 근대고문헌을 계속 구매 및 수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기타 기관은 근대고문헌을 수집 ·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근대고문헌과 연계한 교육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확인한 인터넷 경매 기관의 경우, 전문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근대고문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근대고문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에서 제시한 근대고문헌의 총량과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DB상에서 제시하는 총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것은 각 기관마다 자료를 DB에 등재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3. 근대고문헌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 3.1. 기관별 근대고문헌 현황 분석

- 24개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267,677건, 33개 대학도서관에 544,160건, 기타 기관에 35,049건 등, 근대고문헌의 총량 846,886건을 파악함.
- 문제는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파악된 고문헌의 총량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다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현재 고문헌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근대고문헌의 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이미 구축된 주요 기관의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여 그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함.
  - 국/공립기관 4개 기관, 대학도서관 15개 기관에서 구축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 총량을 확보함.
  - 각 기관별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된 자료 중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수량을 확인함.
  - 각 기관별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된 자료 중에서 근대고문헌이 포함된 비율을 도출함.
  - 근대고문헌은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인쇄 출판술로 간행·필사되고 양장본 등의 근대 형식으로 제본된 자료를 조사하였고, 각 기관별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에 구축된 자료 중에서, 발행 연도, 발행자, 발행소 미상인 자료는 동일한 자료의 간행 양상, 동일한 자료에 부착된 판권지 등을 통해서 시기를 추정함.

#### ■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소장현황

-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중에서 구축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 이하 DB로 약칭)를 제공한 기관은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5개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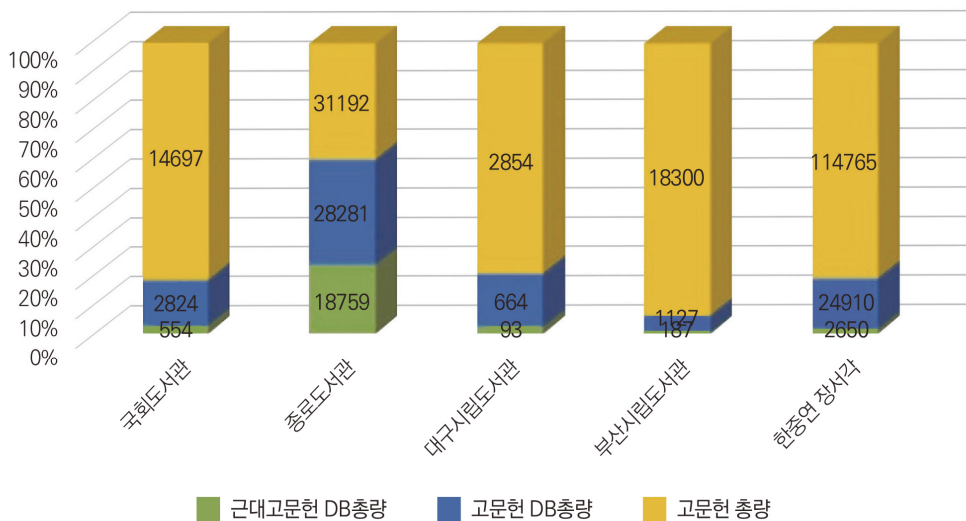


- 5개 기관에서 고문헌의 총량, DB로 구축된 고문헌의 총량, DB상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의 총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IV-24〉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근대고문헌으로 분류 가능한 자료의 상황

구분	국회 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 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시립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립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계
고문헌 총량	14,697	31,192	2,854	18,300	114,765	181,808
DB로 구축된 고문헌 총량	2,824	28,281	664	1,127	24,910	57,806
DB상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 가능한 자료의 총량	554	18,759	93	167	2,650	22,223

〈그림 IV-25〉 국/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에서 근대고문헌의 자료 비율



□ **국회도서관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14,697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2,824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2,824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554건이 확인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 종로 도서관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31,192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28,281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28,281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8,759건이 확인됨.

□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854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664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664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93건이 확인됨.

□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18,300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12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12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67건이 확인됨.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114,765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24,910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24,910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2,650건이 확인됨.

□ 5개 대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총량, DB로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의 수량, DB의 고문헌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결과 수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5개 대표 기관에서 DB로 구축한 고문헌의 총량 57,808건 중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 22,223건을 확인함. 이는 이미 구축된 고문헌 총량에서 대략적으로 38% 정도를 차지함.
- 5개 대표 기관에서 확인된 상황을 현재 파악된 고문헌 총량 300만 여점에 대입해본다면 대략 1,140,000여 권을 근대고문헌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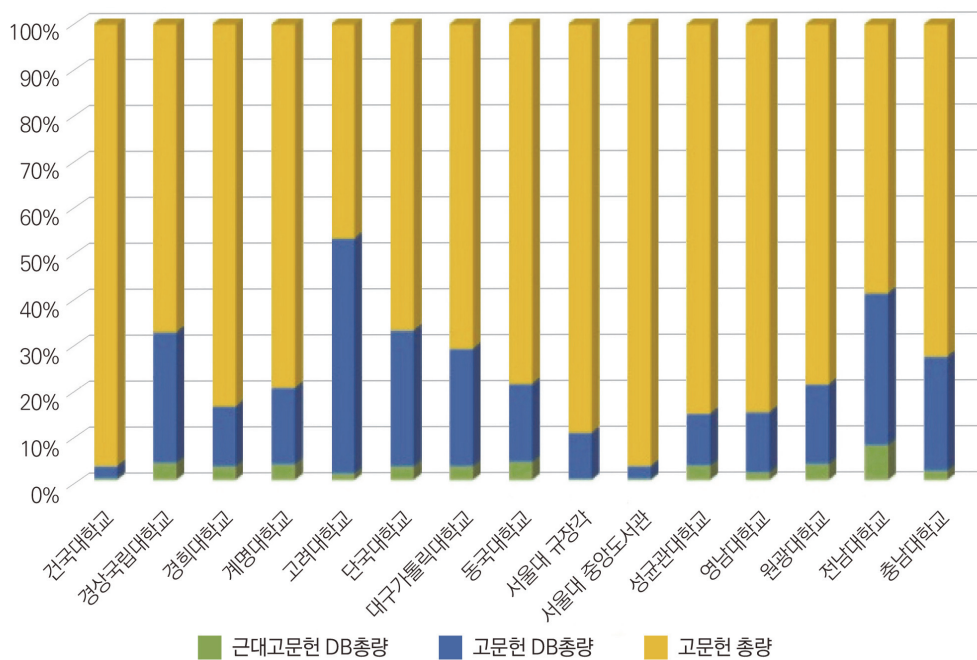
## ■ 대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소장현황

- 대학도서관 중에서, 구축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DB, 이하 DB로 약칭)를 제공한 기관은 건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 규장각, 서울대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15개 기관임.
- 15개 기관에서 고문헌의 총량, DB로 구축된 고문헌의 총량, DB상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의 총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IV-26〉 대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근대고문헌으로 분류 가능한 자료의 상황

구분	고문헌 총량	DB로 구축된 고문헌 총량	DB상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의 총량
건국대학교	21,306	577	94
경상국립대학교	46,732	19,851	2,600
경희대학교	24,181	3,794	874
계명대학교	78,400	16,497	3,426
고려대학교	107,638	18,298	3,292

구분	고문헌 총량	DB로 구축된 고문헌 총량	DB상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의 총량
단국대학교	9,690	4,307	437
대구가톨릭대학교	14,365	5,198	617
동국대학교	32,224	7,000	1,630
서울대 규장각	249,800	28,246	721
서울대 중앙도서관	283,194	7,981	1,022
성균관대학교	84,150	11,202	3,154
영남대학교	98,752	15,371	1,952
원광대학교	28,318	6,261	1,268
전남대학교	30,913	17,467	4,042
충남대학교	46,887	16,107	1,339
계(15개 기관)	1,156,550	278,158	26,468



〈그림 IV-27〉 대학기관 고문헌 중에서 근대고문헌의 자료 비율

□ **전국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1,306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57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57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94건이 확인됨.

□ **경상국립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46,732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9,851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9,851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2,600건이 확인됨.

□ **경희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4,181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3,794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3,794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874건이 확인됨.

□ **계명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78,400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6,49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216,49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426건이 확인됨.

□ **고려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107,638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8,298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8,298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292건이 확인됨.

□ **단국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9,690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4,30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4,30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437건이 확인됨.

□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14,365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5,19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5,19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617건이 확인됨.

□ **동국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32,224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7,000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7,000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630건이 확인됨.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49,800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28,246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28,246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721건이 확인됨.

□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83,194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7,981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7,981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022건이 확인됨.

□ **성균관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84,105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1,202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1,202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154건이 확인됨.

□ **영남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98,752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5,371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5,371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952건이 확인됨.

□ **원광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28,313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6,261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6,261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268건이 확인됨.

□ **전남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30,913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7,46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7,46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4,042건이 확인됨.

□ **충남대학교의 상황**

- 고문헌의 총량은 46,887건으로 확인되고,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의 총량은 16,107건임.
- 현재 구축된 고문헌 DB 자료 16,107건에서, 근대고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339건이 확인됨.

□ 15개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총량, DB로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의 수량, DB의 고문헌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결과 수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15개 대표 기관에서 DB로 구축한 고문헌의 총량 278,158건 중에서, 근대고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 26,468건을 확인함. 이미 구축된 고문헌 총량에서 대략적으로 15% 정도를 차지함.
- 15개 대표 기관에서 확인된 상황을 현재 파악된 고문헌 총량 300만여 점에 대입해 본다면 대략 450,000여 건을 근대고문헌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3.2. 근대고문헌의 총량 추정

□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공립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 24개 기관, 대학 도서관 33개 기관, 기타 3개 기관까지 전체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대고문헌의 총량과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IV-28〉 국내 주요기관 소장 근대고문헌 총량

번호	기관명	총량(건수)	번호	기관명	총량
01	4.19혁명기념도서관	8	31	고려대학교(서울)	63,362
02	경남대표도서관	21	32	국민대학교	13,459
03	국립고궁박물관	50	33	단국대학교(울곡도서관)	19,887
04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5	34	대구가톨릭대학교	6,924
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31	35	동국대학교(서울)	16,024
06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자료실	1	36	동덕여자대학교	1,105
07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313	37	서강대학교	12,698
08	국립한글박물관	2,547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458



번호	기관명	총량(건수)	번호	기관명	총량
09	국사편찬위원회	86,104	39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96,534
10	국회도서관	19,200	40	성균관대학교(서울)	20,716
11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921	41	숙명여자대학교	1,278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실	187	42	송실대학교	11,403
13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18,300	43	안동대학교	8,181
14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2	44	연세대학교(서울)	27,176
15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8	45	영남대학교	8,750
16	서울도서관	2	46	용인대학교	4,145
1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51,537	47	울산대학교	1,136
18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28,281	48	원광대학교	15,755
19	송파도서관	2	49	이화여자대학교	17,348
20	송파책박물관	4,082	50	장로회신학대학교	4,163
21	정독도서관	310	51	전남대학교	9,720
22	한국근대문학관	5,200	52	전북대학교	1,822
23	한국사회과학도서관	3	53	전주대학교	6,367
24	한국학중앙연구원	49,632	54	조선대학교	2,760
25	강남대학교	11,079	55	충남대학교	9,000
26	건국대학교(서울)	13,389	56	충북대학교	6,725
27	경기대학교	24,376	57	한양대학교(서울)	10,443
28	경상국립대학교	24,529	58	화봉문고	30,000
29	경희대학교(서울)	25,826	59	현담문고	5,049
30	계명대학교	41,622	60	인터넷 경매업체 등	-
				합계	846,886

- 전체 60개 기관을 검토한 결과,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846,886건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재 파악된 근대고문헌이 총량은 목록, DB로 구축된 자료에 근거를 두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기존에 파악된 고문헌의 총량에 근대고문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현재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서 고문헌에 포함된 근대고문헌은 15%~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고문헌의 총량이 300만여 점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5%에 해당하는 최소 450,000건, 38%에 해당하는 최대 1,140,000건이 근대고문헌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한편,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1945~1950)>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도 있음.<sup>50)</sup>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 5달 동안 간행된 단행본은 총 128종에 이름. 이를 기준으로 할 때, 1945년 1년 동안 출판된 총량을 추정한다면 대략 330여 종의 도서가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 1년간 출판된 총량을 330여 종을 기준으로 할 때,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발행된 출판물은 대략 문헌은 대략 11,550종임. 각 출판물의 초판본 간행 부수를 200부로 가정한다면 대략 2,310,000책이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전체 간행된 출판물의 50%가 남아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1,155,000여 건으로 추정됨.
- 앞서 60개 기관 소장 근대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846,886건, 고문헌에 포함된 근대고문헌을 분류한 총량은 최소 450,000건에서 최대 1,140,000건으로 추정했음. 초판본 간행 부수의 50%가 현존할 경우 대략 1,155,000여 건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고문헌에 포함된 근대고문헌의 최대 총량과 비슷한 수준임.

50)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1945~1950)』, 소명출판, 2009.

- 현존하는 근대고문헌의 총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근거, 그리고 앞으로 각 기관별로 근대고문헌을 정리한다면 적어도 1,000,000여 건이 발굴 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각 기관마다 근대고문헌을 재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시급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음.

### 3.3. 운영 및 관리 실태

#### 3.3.1. 관리 시스템의 현황

- 국내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근대고문헌을 일반자료로 관리하거나 고문헌과 함께 관리하는 상황. 근대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 마련, 관리를 위한 각종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특히, 근대고문헌을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의 설치, 지류의 온습도 관리를 위한 24시간 항온항습기 시스템 시설 마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의 마련, 근대고문헌 자료의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처리실의 설치가 각 기관마다 필요한 상황임.
- 국내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분류표에서 DDC / DDC21 / DDC22 / KDC / KDC5, 목록규칙에서 KORMARC / KCR /고서목록규칙 등을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근대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표 및 목록규칙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국내 근대고문헌 보존 처리 인력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근대고문헌 자료의 특성상 복원,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전문 인력을 위한 양성 교육이 시급한 과제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기관 내에 보존과학부(지류 전문 학예연구사 1인, 수리복원 기술자 1인, 보존처리 전문가 2인)를 두고, 자료관리부와 협업하여 근대고문헌 소장 자료의 수리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수립한 사례를 참조하여 근대고문헌 보존을 위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국내 근대고문헌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각 기관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특정 기관만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이나 귀중본 자료를 원문서비스(이미지 또는 PDF)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기존에 구축된 근대고문헌 자료를 공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을 위해서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 근대고문헌의 구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드물고,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범위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매하는 상황. 최근 각 기관에서 기증/기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 결과 기관에서 미 소장 자료를 다수 확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국내 근대고문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증/기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다수 기관에서는 기증/기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임. 국/공립 기관 2곳, 대학도서관 16개 곳에서는 기탁자의 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기증/기탁자를 위한 다양한 예우도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송파책박물관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도너 월(Donor Wall) 설치 및 운영,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주요 기증자에 한해서 기증 증서 발급, 기념품 증정(달력 등), 각종 기획전의 참여 초청, 기증품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음.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증/기탁 제도의 활성화, 이를 위한 예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 근대고문헌 아카이브의 운영 방향

### 4.1. 운영 관리를 위한 측면

- 근대고문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문헌 내에 근대고문헌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고, 근대고문헌이 일반도서로 분류된 경우도 많음. 가장 큰 문제는 근대고문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근대고문헌의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함. 각 기관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리되는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텍스트의 메타정보를 통일된 규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국가자료종합목록, 근대문학종합목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4.2. 보존 관리를 위한 측면

- 근대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온항습시스템, 자동소화설비, 보존처리실 마련이 시급한 상황.

### 4.3. 전문 인력의 측면

- 근대고문헌을 보존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이 각 기관마다 필요한 상황.

### 4.4.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뒤로, 지금까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옴.

- 고문헌과에서는 고문헌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 등록, 보존, 이용, 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 조사, 영인 및 연구,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근대고문헌 소장 기관임. 이러한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근대고문헌의 효율적 관리 방안, 근대고문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근대고문헌에 대한 선제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특화된 시설 마련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근대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근대고문헌 DB의 구축사업이 필요한 상황. 이 사업은 국가 기관의 예산으로 이를 완성할 수 있는 별도의 용역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수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송파책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관람객이 유물의 소장 환경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이는 수장고의 설치, 이와 연계된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근대고문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차후 국내 다양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국내 각 도서관의 자료 정리와 목록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의 수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 현재 국내 경매 시장에서 근대고문헌의 경매 시작가격은 건 당 50~100만원에서 출발함. 자료 확충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예산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함. 예를 들어, 화봉문고와 현담문고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5,456권을 최소 가격

에 구입한다고 해도, 적어도 1,091,200,000~3,273,600,000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미 소장 근대고문헌의 구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증/기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 국내 기관 중에서 개인 및 문중 기증자를 위하여 기념 전시, 문고 설치, 목록 작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운영해 왔음.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기탁의 의사를 보이는 개인 및 문중 기증자가 급증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증/기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소장인 근대고문헌 자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V |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증장기 발전 방향 및 제언



#### 1.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관리, 활용의 특화 방향

집적과 집중	맞춤형 관리	문헌의 확충	대국민 서비스	환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공간 확보</li> <li>➢ 근대고문헌 전문 인력 충원</li> <li>➢ 특별 서고 예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li> <li>➢ 보존</li> <li>➢ 관리</li> <li>➢ 근대고문헌종합목록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확충보존</li> <li>➢ 온라인 제공 근대고문헌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키비움 구현</li> <li>➢ 기록물 은행 역할 실현</li> <li>➢ 학술자료의 진원지</li> <li>➢ 온라인 플랫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리 인증제</li> <li>➢ 근대고문헌 전문가 양성</li> <li>➢ 해외 및 북한 근대고문헌 파악</li> <li>➢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의 통합</li> </ul>



### 1.1. 1단계: 특별서고 마련을 통한 집적과 집중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근대고문헌은 NDL도서서고, 고문헌실, 자료보존관 외에도 수많은 서고에 흩어져 있음. NDL비도서 3-1 서고, NDL비도서 3-2 서고, 개인문고실, 고문헌실(개가), 귀중본서고, 근대문학(서고), 문학실, 북한자료실(서고), 서고자료신청대, 서고자료신청대(제3서고), 서고자료신청대(죽보), 서고자료실(서양서), 신문자료실(서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양서, 본관보존), 연구자료실(역삼동), 정부간행물실(NDL 4-3 서고), 특수자료실 등이 이에 해당함.
- 근대고문헌은 출현 시기가 근대라는 이유로, 내용적 혹은 형태적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서고에 분산 배치되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근대’라는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것은 한국의 인문학적, 사회적 영향력의 기원을 근대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근대적 유산들이 현재의 우리를 말해주는 측면이 많음. 이에 따라 그간 방치되어 있었던 근대고문헌은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근대고문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전체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현재 근대고문헌은 모두 흩어져 있음.
- 근대고문헌이 흩어져 있다 보니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지금까지 근대고문헌은 고문헌의 아류이거나,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퇴색의 증거처럼 인식되었음.
- 따라서 앞으로는 근대고문헌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근대고문헌’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이 당시 서적은 형태적으로도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전근대 서적의 보존 방식과 근대 서적의 보존 방식이 두루 활용되어야 할 것임.

### 1.1.1. 공간 확보

- 현재 소장한 근대고문헌 14만여 책의 보존을 위해 밀집서가형(CSS) 서고는 304㎡, 고정서가형(FSS) 서고는 742㎡의 면적<sup>51)</sup>이 필요하며, 기록물 관리 표준<sup>52)</sup>에 의거하면 1,386㎡의 수장 공간이 필요함. 이는 단행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으로, 향후 확충될 문헌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51) 윤희윤의 논의를 참고하여 수정함. 윤희윤, 「대학도서관 공동 보존 서고 설립 · 운영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5(3),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4. 50-51쪽.

52) 국가기록원 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 환경 표준』, 국가기록원, 2021, 7쪽.

〈표 V-29〉 밀집서가형(CSS)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구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한계수장률		적용기준 85% (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
유니트 구성		서가 5개를 1개의 유니트로 하고 유니트당 통로를 1개 두는 것으로 가정
표준서가 규격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30cm)
유니트당 점유면적		유니트 간격 1.35m + [유니트 넓이 2.6m(선반 깊이 0.26m × 선반수 10개(서가 5개의 양면) × 유니트 깊이 1.83m)] + 주통로 1.5m = 7.61㎡
수장 책수	선반당	25권(도서두께 평균 3cm 적용)
	유니트당	유니트당(2련 7단 양면서가 × 5개) 수장책수 :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 × 서가 5개 = 3,500권
	1㎡당	3,500권 ÷ 7.61㎡ = 460권
수장 책수별 건축규모	현재	14만 권: 14만 권 ÷ 460권 = 304㎡
	연간 증가수량 <sup>53)</sup>	5천 권: 5천 권 ÷ 460권 = 약 11㎡

〈표 V-30〉 고정서가형(FSS)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구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한계수장률		적용기준 85% (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
표준서가 규격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30cm / 단)
서가당 점유면적		서가간격 1.5m(선반 깊이 0.25m × 2개 + 실제 서가간 간격 1m) × [서가길이 1.83m(0.9m × 2련 + 여유율 3cm) + 통로폭 0.61m] = 3.7㎡
수장책수	선반당	25권(도서두께 평균 3cm 적용)
	서가당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7단 2련 양면) = 700권
	1㎡당	700권 ÷ 3.7㎡ = 189권
수장 책수별 건축규모	현재	14만 권: 14만 권 ÷ 189권 = 741㎡
	연간 증가수량	5천 권: 5천 권 ÷ 189권 = 약 26㎡

53) 연간 증가수량은 지난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수집 현황을 참고하여 그 평균값으로 계산함. 2012~2021년 고문헌 수집 평균량은 약 5천 권으로 확인됨.

〈표 V-31〉 기록물관리표준 수장 책수별 건축 규모

구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sup>54)</sup> 99㎡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내외
수장 책수별 건축규모	현재	14만 권: $14 \times 99\text{㎡} = 1386\text{㎡}$
	연간 증가수량	5천 권: $0.5 \times 99\text{㎡} = \text{약 } 50\text{㎡}$

### 1.1.2. 인력 배치 및 충원

- 근대고문헌의 물리적 통합은 관리 인력의 조직적 통합을 전제로 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는 9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직도 상에서 근대고문헌을 전담하는 인력은 1명만 배치된 상황. 대부분은 고문헌 전문가로서, 근대고문헌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함. 근대고문헌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근대고문헌의 수집-관리-정리의 업무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대고문헌 업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움.



54) 종이기록물 권당 30~35mm 기준.

- 근대고문헌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여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고문헌과 직원들 대부분은 고문헌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대고문헌을 함께 다룰 경우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도,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근대고문헌은 고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근대 출판 및 근대 문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자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
- 더욱이 근대고문헌의 표기 언어의 통계를 고려할 때, 고전일본어와 근대일본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 주지하듯 이 시기에는 우리의 전통 한문은 물론 옛한글과 근대한글이 혼종적으로 사용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에 능통한 전문 인력 또한 필요함.
-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조직은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인력 재배치로는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새로운 인력 보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근대고문헌 관리의 총괄은 현 도서관 인력 중 근대고문헌에 노하우를 갖춘 인물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1.1.3. 예산 확보

-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내 주요 기관별 예산 배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요한 예산 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
- 예산은 대체로 특별서고 마련에 필요한 소요 비용으로, 인건비, 장서 이관 비용, 시설운영비, 서고 구입비 등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음.

〈표 V-32〉 특별서고 예산 산정 방식

인건비	장서 이관 비용	시설운영비	서고 구입비
충원 인력 인건비	장서량에 따른 이관 비용 추정	공간재편에 따른 시설운영비	서고 구입비

## 1.2. 2단계: 맞춤형 관리



### 1.2.1. 분류

- 현재 근대고문헌의 분류체계는 일제강점기 분류표와 목록법, 해방 이후 박봉석 편 한국십진분류표로부터 출발한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KDCP)이 혼재되어 있음.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분류체계가 필요함.
- 문헌에 적합한 기존 분류체계 기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함. 기존 분류체계를 그대로 둠으로써 근대고문헌에 지층처럼 남아 있는 문헌 정리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해야 함.
- 새로운 분류체계 수립은 근대고문헌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긴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헌 정리의 역사적 표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 인력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1.2.2. 보존

- 소장 자료 연대별 섬유분석 결과를 보면 1910년~1980년 자료들은 pH 4~5로 산성으로 측정되었고, 발행 연도별 섬유의 특성과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섬유분석 결과에 따른 소장 자료의 세심한 보존이 필요하며 이는 곧 관리법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

### 1.2.3. 관리

- 근대고문헌 소장 대표 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 근대고문헌 자료의 보존 필요성 및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고문헌’ 관리의 방향을 참조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관리 주요 업무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V-3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관리 주요 업무 현황<sup>55)</sup>

추진 업무	세부 사업
수집	고서 구입, 수증 및 수탁 국내 소재 한국고서 조사 영인, 해외 소재 한국고서 조사 영인
정리	등록, 분류, 목록
보존관리	영인본 · 마이크로필름 제작, 원문 DB 구축 포갑 · 배접(수리복원), 고서고 및 귀중서고 관리
고문헌실 운영	자료열람, 이용안내 및 고문헌에 대한 정보 제공 관내외 대출, 자료 촬영 고문헌 관련 민원처리 및 자료상담 개가자료 및 서고자료 관리
문화행사	고문헌 관련 강좌, 전시, 학술대회
콘텐츠 개발 및 구축	고문헌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구축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구축 운영,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
근대문학종합목록*	국내 도서관, 문학관 등의 근대문학자료 통합 · 관리 근대문학자료의 소장정보 및 목차, 해제, 원문 등 온라인 제공

55)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2018.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고문헌과 담당업무(<https://www.nl.go.kr/NL/contents>) 참조.

- 위 표를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근대고문헌도 고문헌과 유사한 업무 단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근대고문헌에는 다양한 시대적 요소가 혼종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고문헌적 요소가 많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자료도 있기 때문임.
- 둘째, 근대고문헌도 고문헌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근대고문헌은 고문헌처럼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두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셋째, 따라서 근대고문헌도 고문헌 업무 단계(수집 - 정리 - 보존관리 - 고문헌실 운영 - 문화행사 - 콘텐츠 개발 및 구축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관리 등)의 흐름에 맞춰 업무 단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근대고문헌 관리의 체계화는 ‘지식정보관리부’ 산하 ‘고문헌과’의 담당 업무 중에 ‘근대문학종합목록’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위 표의 하단에 음영으로 처리한 것처럼, ‘고문헌과’에서는 ‘근대문학종합목록’을 관리하고 있음.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업무 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임.
- 첫째, ‘고문헌과’에서 ‘근대 시기의 문헌’을 다루고 있다는 점임. 이는 이미 ‘근대고문헌’이 ‘고문헌’의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근대’라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근대고문헌’은 ‘고문헌’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충분함.
- 둘째, 현재 ‘근대 시기의 문헌’에 대한 업무는 문학 자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근대 시기의 문헌’에는 문학 자료만 존재하지 않음. 특정 학문 분야를 넘어서 ‘근대 시기 문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함.
- 셋째, 근대고문헌을 별도의 업무로 독립시켜 체계화해야 함. 근대고문헌은 현재 전담 기구가 없이 고문헌과에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근대고문헌의 현재 수량이나 향후 늘어날 문헌의 양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로 관리되는 것은 부적절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대고문헌’ 담당 부서를 신설하였을 경우, 그 신설 부서의 업무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V-3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관리 주요 업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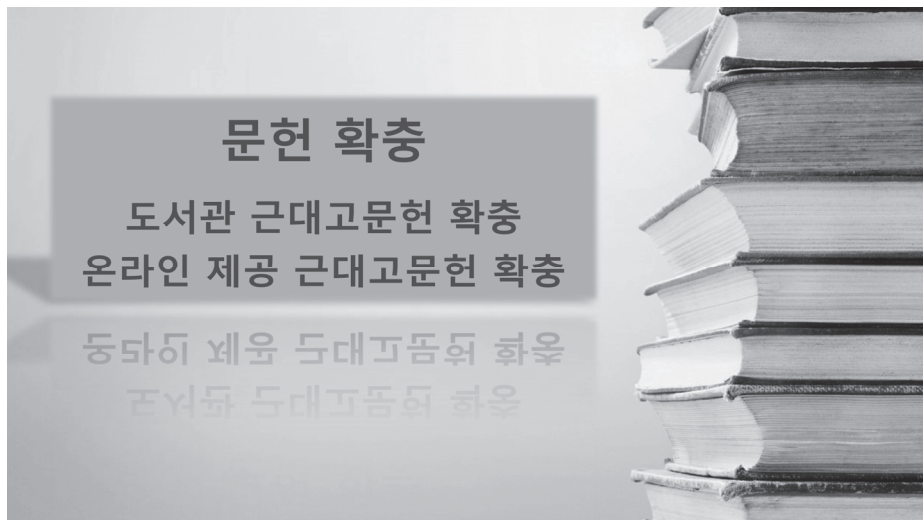
추진 업무	세부 사업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현황 파악 및 각급 도서관을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화</li> <li>• 기 교류 해외 기관과의 ‘근대고문헌’ 중심의 새로운 협의 출발</li> <li>• 근대고문헌 구입</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만의 분류체계 수립</li> </ul>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 근대고문헌의 특수성 고려하여 포갑, 배접(수리 복원)</li> <li>•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화(머신러닝 등) 가능성 탐색</li> <li>• 첨단 기술을 이용한 관리 방안 마련</li> </ul>
근대고문헌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가능 자료와 불가능 자료의 분류</li> <li>• 대출 불가 자료의 접근 방식 결정 - 디지털 화면을 통한 열람의 확장</li> <li>• 근대고문헌에 대한 충실한 정보 안내</li> <li>• 근대고문헌 관련 민원처리 및 자료상담</li> <li>• 개가자료 및 서고자료 관리</li> </ul>
문화재 및 귀중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귀중본 지정 및 이용</li> <li>• 정기 점검, 보고 및 보존관리</li> </ul>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근대고문헌 해제 작성</li> <li>• 해제정보 제공 및 해제집 발간</li> <li>• 자료집 및 문화재 영인본 발간, 배포</li> <li>•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li> </ul>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련 강좌, 전시, 학술대회</li> </ul>
콘텐츠 개발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고문헌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구축</li> </ul>

추진 업무	세부 사업
근대고문헌종합목록 운영 및 한국고문헌 종합목록과의 호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문학종합목록의 ‘근대고문헌종합목록화’(범위 확대 및 고도화)</li> <li>•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의 호환 및 향후 ‘통합’을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li> <li>• ‘한국고문헌종합목록’으로의 통합</li> </ul>

-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근대고문헌’ 분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고문헌 자료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함. 근대고문헌이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고문헌의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근대고문헌을 보유한 각급 도서관에 전파할 필요가 있음.

### 1.3. 3단계: 문헌 확충

- 자료를 확충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음. 실제로 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양을 늘리는 것이 그 하나라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늘리는 것이 두 번째라 할 수 있음.



- 문헌 확충의 경우, 소장 환경 변화 및 희귀성으로 인해 고문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에 충분한 예산을 필요로 함. 따라서 문헌 확충에 앞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입 외의 수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헌 확충을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근대고문헌의 가치와 귀중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집하는 방안이 제시됨.

### 1.3.1. 도서관 근대고문헌 확충

- 도서관에 근대고문헌을 늘리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근대고문헌 중에는 현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존재함. 또한 현재와 시간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희소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도 존재함. 따라서 근대고문헌 분야에서는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 혹은 고서점의 소장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한편 기증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 확충 방향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민간에서 근대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많은 상황. 민간 소장자들의 기증 도서 중에는 근대고문헌에 속하는 책이 많은 편임.
- 근대고문헌 수증·수탁 대상은 국내 주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도서관·박물관·서원·향교·사찰·문중·개인·고서점 등이며, 수증·수탁을 유도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정책이 수립되어야 수증·수탁 근대고문헌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 근대고문헌 구입·수증·수탁·민간조사 외 근대고문헌 확충방안으로 대체자료 개발을 제안할 수 있음. 개인 혹은 각 소장처에서 근대고문헌을 수증·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 문헌을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 1.3.2. 온라인 제공 근대고문헌 확충

-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늘리는 방향으로선 우선 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있음. 근대고문헌은 서적의 물리적 특성상 손상이 쉽게 우려되기에 필수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그러나 그 외에도 타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근대고문헌을 온라인 원문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도서관의 자료를 ‘근대고문헌’이라는 기준 하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것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임.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한국 고문헌의 소재를 파악하고 목록, 해제, 원문 등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유일의 한국 고문헌의 종합목록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 유출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 확충이라는 것이 소장 자료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장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자료 열람의 기회를 최대한 확장하여 자료 확충의 효과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함.
-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근대고문헌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근대고문헌 종합목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이른바 ‘근대고문헌 종합목록’은 궁극적으로 ‘KORCIS’로 통합 관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자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 단계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럴 경우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처럼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된 자료 또한 ‘근대고문헌’의 목록에 함께 넣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자료들이 포섭될 수 있음.

## 1.4. 4단계: 대국민 서비스

### 1.4.1. 일반시민 : 명실상부한 ‘라키비움’의 구현

- 근대고문헌은 전근대 문헌과 연결되며, 현대 문헌과도 연결됨. 다른 시기의 책들과 엮어 이해하기 쉬움. 따라서 자료 전시 및 주제 기획을 시민들의 요구에 더 가깝게 시도해볼 수 있음.

- 근대고문헌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요구하는 ‘라키비움’의 실현에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1.4.2. 적극적 시민 및 준전문가 : 국가 및 지역 정체성 구축을 위한 ‘기록물 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

- 근대고문헌은 격동의 19세기 말~20세기 초 민족의 현실을 만나볼 수 있게 해 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급 도서관은 지역적 차원에서, 근대고문헌을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모두 수렴하여 우리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구축이 정교화 되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근대고문헌이 ‘기록물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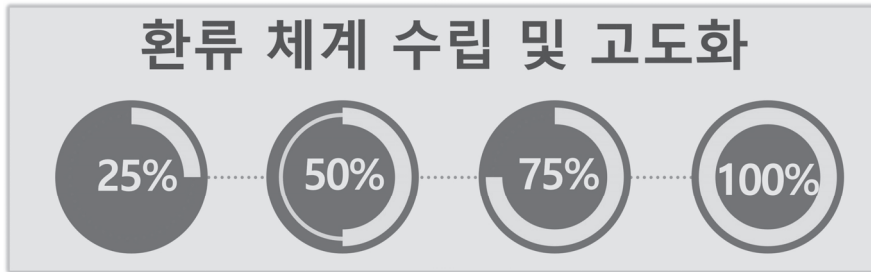
#### 1.4.2. 전문 학술 연구자 : 한국 ‘학술자료의 진원지’로서의 위상 강화

- 고전 연구 분야이든 현대 연구 분야이든 근대 시기 자료를 빼놓고는 연구가 불가능함. 현재도 연구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자료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비단 특정 어문학 분야에 국한된 특징이 아님.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근대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검색이 되지만, 근대고문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검색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음. 만약 근대고문헌만의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 학술자료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봄.
- 더 나아가서는 원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근대고문헌 자료의 텍스트, 그에 대한 번역문 등 다양한 가공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이용의 용이성을 강화할 수도 있음.
- 최근 업체를 통한 학술자료의 유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한국 학술자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1.4.4. 근대고문헌을 위한 온라인 ·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이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라키비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록물은행은 적극적인 시민 및 준전문가, 학술자료의 진원지는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이러한 이용자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는 근대고문헌이 별도의 무대 위에 존재할 때 실현하기 더욱 용이함. 따라서 근대고문헌만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맥락과도 상통함.

## 1.5. 5단계: 환류 체계 수립 및 고도화



- 근대고문헌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전국 및 세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근대고문헌 자료들을 점차 국립중앙도서관의 온-오프라인 무대로 집중시킬 수 있으리라고 봄. 이러한 목표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환류 체계 수립’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국립중앙도서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 앞서 언급했듯 거시적으로 볼 때 근대고문헌은 단순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전국의 도서관에 적용함으로써 근대고문헌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평준화해야 함. 이것은 자연스럽게 환류 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또한 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향후 근대고문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필요함. 이는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환류 체계는 아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며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임.

### 1.5.1. 근대고문헌 관리 인증 평가 제도 수립 및 시행

- 근대고문헌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의 장서 관리 현황을 평가함.

- 이를 ‘근대고문헌 관리 인증 평가제도’로 정착시키고,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을 막론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관리 예산을 지원함.
- 이때 개인의 근대고문헌 보존 및 정비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고려함. 소정의 평가를 거쳐 근대고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인 소장 서적에 대해서 관리 예산을 지원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예산 지원을 근거로 평가의 권한을 가짐.
- 이를 통해 좋은 평가가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가 산재된 고문헌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목록 구축이 기존의 목표였다면, 근대고문헌의 시스템은 통합관리의 주체이면서 위탁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근대고문헌 장서 관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5.2. 근대고문헌 연구·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학과)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여, 근대고문헌 연구 역량 및 관리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을 국내 대학에 설치함. (대학원 과정)
- 고전 문헌학과 인접한 고전문학, 한문학, 역사, 철학 등 고전 연구 분야에는 문헌의 내용은 물론 서지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고전 연구만이 아니라 고전 문헌학에도 관심이 높음.
- 문헌정보학 전공자 중 문헌의 내용적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적합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요의 학생들을 근대고문헌 전문가로 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관리는 물론 각급 도서관의 인력으로 배출하여 관리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1.5.3. 해외 및 북한 근대고문헌 현황 파악 및 통합 관리

- 해외 및 북한과의 교류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근대고문헌이 대상은 아니었음.
- 근대고문헌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 현황 파악의 대상이 늘어나게 될 것임. 이들 자료에 대한 조사는 물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함.

### 1.5.4.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와의 통합관리 추진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대고문헌은 한데 모여서 관리되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렇게 모였을 때 자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함. 도서관 내 원 자료 확보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자료가 확보된다는 것은 꼭 오프라인으로의 입수만을 의미하지 않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근대고문헌 자료를 모아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음.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를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와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앞서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봤듯,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로운 후속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자료 확보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하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민간 기증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상의 자료 공유를 통해 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 근대고문헌 관리 보존 시설 확충의 필요성

- 현재 서고는 고문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대고문헌 관리-보존과는 거리가 있음. 근대고문헌은 자료의 재질, 성격 등에서 고문헌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자료의 부식, 산성화의 진행이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근대고문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존 시설 건립 및 확충이 시급한 상황.
- 해외의 경우, 근대고문헌 관리 시설만 따로 특화되어 운영되어 있기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대고문헌 관리 시설의 건립, 기존의 유효 공간을 재배치하여 근대고문헌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고문헌, 근대고문헌의 기증 기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자료에 대한 별도 보존 관리 시설이 없는 상황. 자료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현재 서가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자료 보관의 어려움은 물론, 고문헌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고문헌, 근대고문헌의 경우, 근대문화재로 지정되는 사항이 급증하는 현재의 시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귀중서고 정도의 특별관 마련이 시급함.

### 3. 근대고문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방안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속박물관, 송파책박물관 등은 서고를 유리로 설치하여, 자료를 보관하면서 일반인들이 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시설이 전무한 상태. 고문헌, 근대고문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현재 소장 및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자료 이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열린 수장고와 같은 시설 마련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내 주요 기관별로 달리 예산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고문헌 특별 서고 마련,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4.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단계별-연차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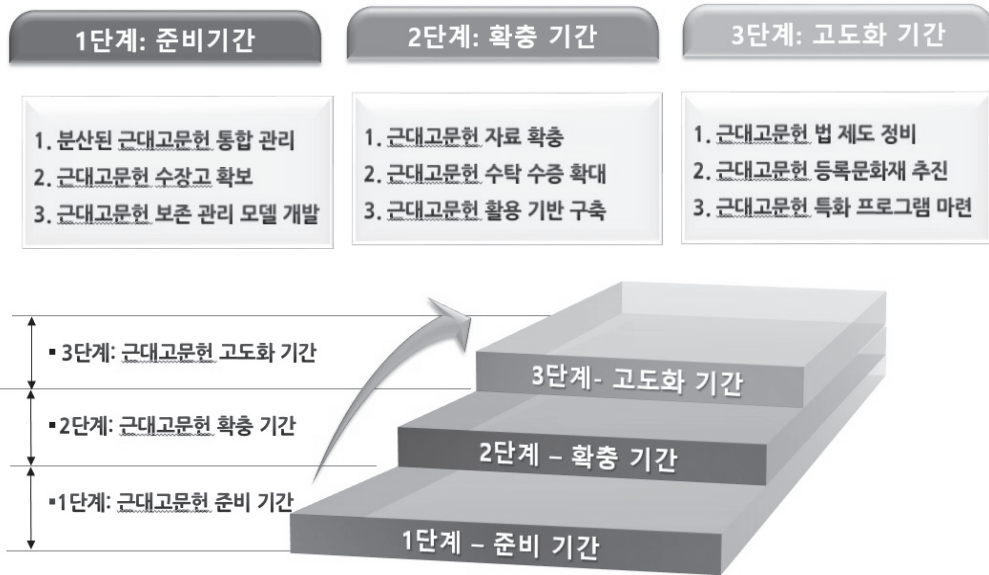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의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은 다음과 단계별 목표를 갖고 진행되어야 함.
-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현재 국내 근대고문헌 소장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근대고문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의 표준 모델을 개발할 책무가 있음. 각 소장 기관마다 근대고문헌의 수량을 통계에서 누락시키거나 공식적인 장서량에 포함되지 않고 미정리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의 훼손을 막고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고문헌의 기준 마련,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방안 및 운영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 서고에 분산되어 소장된 자료를 통합해야 함. 그리고 근대고문헌의 집중관리 체제를 위해서 별도의 시설 및 수장고 확보 되어야 함. 근대고문헌은 고문헌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서는 이를 보존 및 관리하기가 어려움.
-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고문헌의 보존과 관리, 이용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고문헌과 내에서는 근대고문헌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국립중앙도서관 각 서고에 분산되어 소장된 자료의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근대고문헌 전문가 인력 채용이 필수적인 과제임.
-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근대고문헌 자료 확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연속 간행물의 빠진 것, 중요한 자료, 총독부도서관 시절에 소장했던 것 중에 망실한 것은 채워 넣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총독부도서관 도서목록과 현재 소장목록을 대조해서 빠진 것은 구입할 필요가 있음. 이때 국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고문헌 연구의 다각적 지원을 모색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고문헌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이를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등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및 확장 방안이 요구됨.

이를 근거로 하여,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음.

#### □ 근대고문헌 통합 관리 중장기 방안 연차별 추진 과제

- **1단계 준비 기간(2023~2027, 5년간):** 각 서고에 분산되어 소장된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마련. 별도의 시설 및 수장고 확보 계획 수립. 이를 통한 근대고문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의 표준 모델을 개발. 근대고문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 **2단계 확충 기간(2027~2032, 5년간):**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 고문헌 수탁 및 수증 확대, 미소장 근대고문헌 디지털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근대고문헌 콘텐츠 활용기반 구축, 근대고문헌을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및 확장 방안 마련. 수장고의 평창 이전 혹은 근대고문헌을 위한 제3의 단독 건물 건립 추진.
- **3단계 고도화 기간(2033~2037, 5년간):** 근대고문헌 관리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가차원의 근대고문헌 관리 조직 구성을 통한 등록문화재 작업, 총독부 자료, 해방기 자료, 근대문학 자료 특화 프로그램 개발.



〈그림 V-35〉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 연차별 계획

### 차례

- |                         |                             |
|-------------------------|-----------------------------|
| 1. 근대고문헌의 분류 문제         | 3. 근대고문헌의 위상 정립 문제          |
| 1.1. 근대고문헌 정의의 문제       | 3.1. 문화재로서의 근대고문헌           |
| 1.2.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    | 3.2. 근대고문헌의 확대,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
| 2. 근대고문헌의 자료 확충 문제      | 4. 결론                       |
| 2.1. 조선총독부도서관 연구의 필요성   |                             |
| 2.2.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통계의 보완 |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의 관리를 고문헌과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와 발전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문헌과는 앞으로 근대고문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근대고문헌의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 공간, 예산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기존에 관리해온 것과 차별되는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한가? 등등이다. 본 장에서는 근대고문헌의 정리와 분류, 자료 확충, 자료의 위상 정립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첫째, 근대고문헌의 분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근대고문헌에 대한 정의,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의 면밀한 검토, 용어의 검토 문제 등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둘째, 근대고문헌 총량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대한 연구, 조선총독부 장서 통계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등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셋째, 근대고문헌의 위상 정립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근대고문헌을 적어도 ‘국가 등록문화재급’으로 위상을 정하고, 망실된 자료는 구입하고 훼손된 자료는 수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필요성, 근대고문헌의 확대,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등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 1. 근대고문헌의 분류 문제

### 1.1. 근대고문헌 정의의 문제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제4판)』에서는 고문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이나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을, “1945년도 이전에 근대적 인쇄출판술로 간행·필사되고 양장본 등 근대형식으로 제본된 자료.(근대고문헌 하한 시기는 학계 분야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라고 말한다.

두 기관의 고문헌과 근대고문헌의 정의는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각각의 정의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 먼저 『한국목록규칙(제4판)』의 고문헌 정의에는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주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910년 이전에 나온 서양식 제본으로 제작한 서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 나온 영인본이나 동장본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더 많은 논란이 있다. 고문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대·내용·형식의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제4판)』의 고문헌 정의는 ‘동장본’이라는 형식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지학회의 근대고문헌 정의는 『한국목록규칙(제4판)』의 고문헌 정의와 충돌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내린 정의이다. 하지만, 1945년 이전에 나온 ‘양장본’만을 근대고문헌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나온 ‘동장본’은 모두 고문헌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기로 한다. 1910년 이전에 제작한 목판으로 간행한 상업출판물에는 출판법 이후에 판권지를 붙여서 간행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문자류집(文字類集)』도 이런 책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책은 기존의 책을 증정(增訂)한 『증정문자류집(增訂文字類集)』이라는 책도 목판으로 나온 것이 있다.



『문자류집』이나 『증정문자류집』은 목판 인쇄로 찍어낸 동장본이지만, 1910년 이전에 간행된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간행된 것도 있다. 또 『증정문자류집』은 1917년 무렵 활판인쇄로 간행한 것도 있다.

20세기까지 불교서적 가운데 상당수는 활판인쇄로 간행하더라도 세로쓰기에 우철(右綴)로 동장본의 형태로 만든 것이 많이 있었다. 근래에는 가로쓰기에 좌철(左綴)을 하지만 선장으로 묶은 것도 많이 있다.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는 1982년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시비를 안동에 세웠다. 이때 농암 집안에서는 참석한 인사들에게 집안에서 보관하던 목판으로 「籠巖先生漁父詞」(附 陶山十二曲)를 찍어서 선물했다. 10여 장의 얇은 책자이지만, 최초에 이 책판으로 찍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목판을 인쇄한 전통적인 방식의 선장본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1970년대까지 지속된 목활자인쇄를 들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번호 ‘古朝4’로 된 서적들 중, 1910년 이후 나온 상당수의 서적은 고문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신식 연활자, 목활자, 석판인쇄, 목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쇄한 서적을 단지 ‘선장’이라는 것만으로 고문헌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문헌, 근대고문헌에 대한 정의, 범주는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지학회에서 제시한 ‘근대고문헌’이란 용어는 고문헌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학술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는 ‘근대문헌’, ‘준고서’, ‘일제강점기~해방기 도서’의 용어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재의 용어와 ‘근대고문헌’이란 용어의 간극을 좁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2.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도서 분류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의 문화를 다루는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門	철학 · 종교
제2門	교육 · 사회
제3門	법률 · 정치
제4門	경제 · 통계
제5門	어학 · 문학
제6門	역사 · 지리
제7門	이학 · 의학
제8門	공학 · 군사
제9門	산업 · 예술
제10門	全書 · 雜纂
朝鮮門	조선 附 만주 · 몽고 · 시베리아

이처럼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는 제시한 것처럼 11門으로 나누고, 각 門은 다시 '00'부터 '99'까지 하위분류를 했다. 예를 들어 '1-72'는 불교 각 종파인데, 여기에는 “ア. 천태종, イ. 진언종, ウ. 진종 · 정도종, エ. 선종, オ. 일련종, カ. 기타 각 종파” 등이 들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는 ア, イ, ウ, エ, オ 등의 일본어를 영어 A, B, C, D, E 등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조선 관련 서적을 따로 하나의 門으로 나누어 ‘朝鮮門’이라 하고, 여기에 만주 · 몽고 · 시베리아를 붙여 놓았다. 朝鮮門의 ‘00’부터 ‘99’까지의 하위 분류는 ‘朝-’로 시작하는데, ‘朝-00’은 철학, ‘朝-03’은 종교, ‘朝-10’은 교육, ‘朝-17’은 사회 등으로, 신서 분류의 10진 분류와 같은 형태인데, 각 분류의 8은 만주, 9는 몽고와 시베리아 하는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朝-08’은 만주이고, ‘朝-09’의 ア.는 몽고, イ는 시베리아 같은 식이다. 그러므로 10진 분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고서 분류도 마찬가지여서, 제1문에서 제10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조선문을 두고 여기에 만주 · 몽고 · 시베리아를 붙였다.

현재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도서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는 한두 편 볼 수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자료를 확충할 때, 특히 ‘朝鮮門’으로 분류된 도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도서 분류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근대고문헌의 범주,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 2. 근대고문헌의 자료 확충 문제

### 2.1. 조선총독부도서관 연구의 필요성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서지학이나 도서관학 연구자 중에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성격이나 장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1973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국립중앙도서관사』가 현재로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관한 가장 상세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서편(序篇)과 본편(本篇) 그리고 부록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편은(1-145쪽) 조선조까지를 다루었고, 본편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를 서술했다. 본편은 다시 두 장으로 나뉘는데, 제1장(147-237쪽)은 ‘조선총독부도서관시대’이고, 제2장(238-379쪽)은 ‘국립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시대’이다. 그리고 부록(383-425쪽)에는 총독부도서관의 신서부 분류표와 도서관 도면, 그리고 도서관 연표가 들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사』는 본편에서 총독부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누어서 실은 것으로 보아, 이 책을 편찬할 무렵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 단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되던 당시”(153쪽)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연혁에는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이라고만 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느 시점부터 총독부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이라고 여기던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추후 검토해볼 사항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고문헌을 수집하고 이 시기 문헌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 시기와 식민지 시기 국가가 주도한 도서관의 도서 수집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일인 1945년 10월 15일 이전 시기의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관계인가를 잘 설정해야 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위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국립중앙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도서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2.2.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통계의 보완

1925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설립 때부터 1945년 조선이 광복될 때까지 약 20여 년 동안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관장을 맡았던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는,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간행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목록(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目錄)』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sup>56)</sup>

본관은 창립 이해 정본은 물론이고 별본이라 하더라도 한 책의 분실본 없이 20만 책이 엄존(嚴存)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이라는 책무를 십분 완수하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믿고 있는데, 앞으로 장서가 늘어나더라도 이 미풍만은 잊는 일 없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오기야마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발언이다. 이런 인식은 당시 이 도서관에 근무하던 직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1937년 2월 무렵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는 20만 책이었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숫자에 관한 자료는 1973년에 간행된 『국립중앙도서관사』에 연도별로 정리된 것이 있다. 여기에 의하면, 1925년 4월 3일 개관 당시에 장서수는 12,000권이었고, 1938년에 18만 권이 되었다고 한다.(188-189쪽) 또 201쪽의 장서통계에도 1938년의 장서수는 180,079라고 했고, 1945년에는 284,467이라고 했다.

---

56) 서문의 날짜는 1937년 2월이다. 이 책은 상중하 3권인데, 상권은 1937년 3월 30일, 중권은 1937년 11월 30일, 그리고 하권은 1938년 10월 20일에 간행되었다. 1945년에 다시 『신서부분류목록(新書部分類目錄)』이 나온 것이 있는데, 상권(890쪽), 중권(570쪽)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하권은 없는 것으로 보아, 패전으로 하권은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장서통계는 그 출처를 밝혀놓지 않아서, 이 통계의 원천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숫자에 관한 주요 자료로 『조선사회사업(朝鮮社會事業)』 12권 6호(1934.06)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32년 5월말 현재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총수는 126,870책이고, 평균 1개월 열람자는 18,600명 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사』의 통계에서 1932년을 보면, 107,524라고 했고, 1933년은 116,466이며, 1934년에서야 125,106이라고 했다. 『조선사회사업』은 조선사회사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이 도서관 장서에 관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사회과장이 쓴 것이므로 당시의 정확한 통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립중앙도서관사』(1973)에서 밝혀놓은 1945년의 장서수 284,467도, 다른 자료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근식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제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제도화되었으며, 1945년 패전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33만여 권을 훨씬 능가하는 5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 최대의 도서관이었다.<sup>57)</sup>

정근식의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숫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을 무렵 총독부도서관 장서를 33만여 권이라고 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사』(1973)의 28만 권과 약 5만 권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근대고문헌의 관리 주체인 고문헌과에서, 근대고문헌 관리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의 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일, 함께 현재 남아 있는 실물 자료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제언하기로 한다.

---

57) 정근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 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87, 한국사회사학회, 2010, 40쪽.

### 3. 근대고문헌의 위상 정립 문제

#### 3.1. 문화재로서의 근대고문헌

이번에 시행한 용역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현재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총 장서량은 284,443건을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후 고문헌과에서 근대고문헌의 관리를 맡게 되면, 근대고문헌의 재조사와 함께 파손이나 망실된 자료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재의 복원과 같은 성격이다. 서고를 조사해서 근대고문헌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보충할 수 있고, 또 구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의 장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급성장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로, 그간의 경직된 원형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보존과 동시에 활용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sup>58)</sup>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및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등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주로 개항기 이후의 문화유산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다면,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를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고문헌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5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도자료, 2021년 4월 15일.

### 3.2. 근대고문헌의 확대,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근대고문헌을 1945년 이전에 간행된 도서로 규정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근대고문헌을 고문헌과에서 관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근대고문헌의 시기를 더 확대하여, 한국전쟁시기까지로 한다면, 또는 일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대고문헌은 고문헌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근대고문헌은 문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시기가 식민지라는 타율적인 역사시대라고 하지만, 이 문헌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의 일본어 자료도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가운데 청구기호 ‘朝’나 ‘古朝’로 시작하는 자료는 일본어 자료에 비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근대고문헌은 고문헌보다 파손의 위험도가 높은 자료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도서는 지질이 낮아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근대고문헌뿐만 아니라 방각본 같은 한지로 제작한 고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자료 자체가 당시 사회의 경제상황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근대고문헌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대고문헌을 다루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제의 총독부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본국인 일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조선인보다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며, 이 도서관의 자료는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민지 도서관의 정치적 의미에만 중점을 두고 총독부도서관을 다룬다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 도서관에서 근무한 많은 조선인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된다. 고문헌과에서는 이러한 근대고문헌의 특수한 성격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1) 근대고문헌의 분류 문제, (2) 근대고문헌의 자료 확충 문제, (3) 근대고문헌의 위상 정립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고문헌의 정의, 대상 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고문헌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문헌의 정의, 형식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대고문헌의 용어는 각 기관에서 상이하게 부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대고문헌의 시기를 1945년 이전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전쟁시기까지, 또는 일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문(朝鮮門)으로 분류된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대부분 COC(조선총독부 고서)로 분류되어, 목록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집 당시 작성된 목록을 기초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의 요소가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상황에서 COC(조선총독부 고서)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서지목록 고도화 작업이 수행되면 근대고문헌 자료의 확충, COC(조선총독부 고서)의 정밀한 목록 보완 작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

셋째, 근대고문헌은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를 복원하는 작업은 문화재 복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사례: 도서관 목록 검토 사례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

### 차례

- |                    |                     |
|--------------------|---------------------|
| 1. 근대고문헌의 언어 표기 관련 | 3. 근대고문헌의 시리즈로 된 책  |
| 2. 근대고문헌의 연속간행물 문제 | 4.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기타 사례 |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자료 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소장 자료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전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검토 결과를 사례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제시하는 이유는 고문헌과를 중심으로, 근대고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1. 근대고문헌의 언어 표기 관련

### ○ CEC 단행(朝01~15, 569책)의 사례

45번 〈朝鮮寺刹史料 上·下〉는 서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문이다. 따라서 표기 언어는 jpn이 아니라 chi가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213번 〈牖夢千字. 卷1-4〉는 제4권의 경우, 표기 언어가 한글, 한자, 영문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CEC 단행(朝16~28, 1050책)의 사례

563번 〈平凡之善政〉은 목록에 守屋榮夫 著;方漢復 譯으로 되어 있고, 언어는 kor이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일본어 책이기 때문에, 표기 언어는 jpn으로 기재해야 한다.

604번 〈萬機要覽. 1-2〉는 표기 언어가 jpn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해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 언어는 chi가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 ○ CEC 단행(朝89~99, 646책)의 사례

41번 〈潘陽狀啓〉, 42번 〈大東與地圖〉, 43번 〈大東與地圖索引〉, 44번 〈(增正)交隣志〉는 표기 언어가 jpn보다는 chi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97, 98, 99번 〈(原文和譯對照)芝峯類說〉는 표기 언어가 jpn과 chi가 섞여 있다.

258번 〈普專學會論集. 第1-3輯, 特別1號〉의 표기 언어는 kor과 jpn이 섞여 있다.

근대고문헌의 경우, 영어, 일본어, 한자, 한글, 기타 외래어가 혼재되어 표기된 경우가 많다. 이를 일괄적으로 jpn, chi, kor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정확한 실상을 고려하여 표기 언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대고문헌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 2. 근대고문헌의 연속간행물 문제

### ○ CEC 단행(朝16~28, 1050책)의 사례

747번 〈警察彙報〉는 연속간행물인데 단행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766번 〈朝鮮消防〉는 연속간행물로, 발행 이후에 제호가 〈朝鮮警防〉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연속간행물의 발행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CEC 단행(朝89~99, 646책)의 사례

321번 〈朝鮮公論. 1-3, 17-43, 36-54〉은 VOL 1-40로, 6개월 간행분을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처럼 간행본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분책(分冊)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46번 〈京城雜筆. 1-6〉은 연속간행물인데 단행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405-412번 〈滿蒙之文化〉는 연속간행물로, 발행 이후에 제호가 〈滿蒙〉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연속간행물의 발행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대고문헌 관리에서 연속간행물은 제외되어 있다. 위의 사례는 연속간행물 또

한 근대고문헌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대고문헌 및 연속간행물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 3. 근대고문헌의 시리즈로 된 책

#### ○ CEC 단행(朝89~99, 646책)의 사례

74번 〈朝鮮文庫. 1-1, 1-3-1-5, 2-1-2-2, 2-5, 2-7, 2-10-2-11, 2-14〉는 시리즈물로 한 권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의 성격상 분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75번 〈朝鮮文庫. 1-2, 1-4, 3-1〉 역시 시리즈물로 한 권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의 성격상 분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123번 〈綠旗パンフレット：第1-6號〉는 綠旗 팜프렛과 강연팜프렛이 섞여 있다. 현재 이를 한 권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의 성격상 분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166번 〈ラヂオ講演・講座. 1-2〉는 시리즈물로 한 권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의 성격상 분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14번 〈世界植民地現勢〉는 1923년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 조사의 결과를 시리즈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이 책은 분책되어 있지만, 자료의 성격상 시리즈로 한 권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근대고문헌의 경우, 이처럼 시리즈물로 간행된 경우가 많다. 이를 합철해야 할 것인지, 분책해야 할 것인지는 자료의 성격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리즈물이 단권으로 합철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근대고문헌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 4.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기타 사례

##### ○ CEC 단행(朝01~15, 569책)의 사례

20번 〈(遞信部內) 修養講話. 1-3〉은 1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책이다.

36번 〈朝鮮神宮年報. 1-11〉은 11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2책이다.

201번 〈學部次官演說筆記〉는 1908년에 간행된 것인데, 고문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 ○ CEC 단행(朝16~28, 1050책)의 사례

677번 〈面制說明書〉는 ‘1900-1945 추정’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朝鮮總督府保轉本’이라는 도장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서등록번호가 대정 13년 11월 5일 날짜이기 때문에, 이 무렵에 간행된 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757번 〈韓國警察區劃圖〉는 지도인데, 단행본으로 되어 있다.

791번은 〈無聲會講演集. 1-2〉은 8종의 각기 다른 책을 두 책으로 제본해 놓은 것이다.

847번 〈韓國條約類纂〉은 2책인데, 목록에서는 2책이라고 하지 않았다.

890번 〈國際時報. 第3卷-第11卷〉으로 기재해 두었지만 월별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 CEC 단행(朝89~99, 646책)의 사례

131번 〈(最近五年間に於ける)朝鮮の進歩〉는 ‘간행년불명’이라고 했지만,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한 ‘朝鮮物産共進會’에 맞추어서 간행한 책자이다. 이는 일본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을 통해서 확인된다.

176번과 177번 〈朝鮮人の商業〉은 같은 책인데, 따로따로 등록되어 있다.

182와 183번은 같은 책의 복본인데, 따로따로 등록해놓았다.

193번 ‘朝鮮の人口現像 附圖’는 〈朝鮮の人口現像〉의 부록 지도이다. 현재 독립된 책으로 되어 있다.

316번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 : 昭和8至11年〉의 표제는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으로 기재해야 한다.

## ○ CEC 단행(청구기호 1~1-99, 9987책)의 사례

4512, 4513번은 같은 책으로 중국의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한 〈周禮鄭氏注府札記上-下〉이다. 일본어 책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중국책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단권으로 묶여서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 분책이 필요한 경우, 중국책이지만 일본책으로 정리된 경우, 간행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련 작업을 통해서 발행 연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급선무이다.

## 5. 결론

본 장은 도서관 목록 검토의 사례를 통해서, 근대고문헌과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고문헌의 표기 언어는 영어, 일본어, 한자, 한글, 기타 외래어가 혼재되어 표기된 경우가 많다. 이를 일괄적으로 jpn, chi, kor 하나를 택하여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정확한 실상을 고려하여, 표기 언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대고문헌의 관리에서, 연속간행물이 포함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속간행물은 근대고문헌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행본으로 분류된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아울러 자료의 성격상 분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대고문헌의 자료 중에는 시리즈물로 간행된 경우가 많다. 현재 합철된 경우가 많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합철이나 분책을 선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대고문헌과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단권으로 묶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분책이 필요한 경우, 중국책이 일본책으로 정리된 경우, 간행시기가 미상인 자료지만 실제로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자료를 단행본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 등을 살펴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1. 단행본 및 논문

- 강원도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강원도, 2003.
- 경기도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경기도, 2004.
- 광주광역시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광주광역시, 2003.
- 국가기록원 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 환경 표준』, 국가기록원, 2021.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근대 동산문화재 보존 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2014.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사』, 국립중앙도서관, 1973.
-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8.
- 국립중앙도서관 편,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립중앙도서관, 2021.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조사』, 국립중앙도서관, 2015.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2014.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국립중앙도서관, 2009.
-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8.
-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1890-1945: 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소명출판, 2012.
- 문화재청 편, 『근대문화유산 분류 방안』, 문화재청, 2013.
- 부산광역시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부산광역시, 2005.
- 서울특별시 편,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4.
- 신연수, 「문화재청의 근대문학유물 목록화에 대하여」, 『근대서지』 창간호, 소명출판, 2008.
- 엄동섭, 「2011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근대서지』 5, 소명출판, 2012.
-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 옥영정, 「고문헌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391, 국립중앙도서관, 2017.
- 유춘동, 「하동호 소장 고문헌 자료의 성격과 가치」, 『서지학연구』 82, 한국서지학회, 2020.
- 윤희윤, 「대학도서관 공동 보존 서고 설립·운영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이귀복 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연대별 섬유분석집』, 국립중앙도서관, 2009.

이시카와 데쓰야/네모토 아키라/요시미 순야 역음, 조혜린/서유진/김소영 옮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 협력』, 한울아카데미, 2021.

이혜은/김효경,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안정복 장서 수집과 자료적 특징」, 『고문서연구』 43, 고문서학회, 2013.

인천광역시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2004.

전경수, 「근대 기록유산으로서의 근대서지」, 『근대서지』 10, 소명출판, 2014.

전라북도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4.

정근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 한국사회사학회, 2010.

정진석, 『책 잡지 신문 자료의 수호자』, 소명출판, 2015.

제주도 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제주도, 2003.

조선출판문화협회 편, 『출판대감(出版大鑑)』, 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하동호,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 깊은샘, 1981.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4판)』, 한국도서관학회, 2003.

## 2. 주요 참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 기관 및 공공 도서관(24개 기관): 4.19혁명기념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자료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실,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송파도서관, 송파책박물관, 정독도서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 도서관(33개 기관):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울곡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기타 기관(3대 기관): 화봉문고, 현담문고, 인터넷 경매업체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유 춘 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이 윤 석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혜 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 낙 현 (중앙대학교 다빈치대학 교수)  
: 김 현 주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 엄 태 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유 형 동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최 윤 (강원대학교 BK21 4단계 사업팀 연구교수)  
: 이 지 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김 민 정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김 승 은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박 승 희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2022년 연구보고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인 쇄** 2022년 12월 9일

**발 행** 2023년 1월 31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506 FAX 02-590-0712  
<http://www.nl.go.kr>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작·인쇄**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독길 23  
TEL 033-254-8912

ISBN 979-11-6513-310-8(93020)

---

